

2024학년도
단국대학교
논술전형 자료집



모의논술고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단국대학교는 2024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난이도 등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본교 논술고사에 관심 있는 수험생
신청기간	2023. 6. 19(월) ~ 20(화) [2일간]
접수대상	고등학교 교사 - 수험생 및 학부모 단독 접수는 불가
접수방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dankook.ac.kr)에서 고교별 선착순 접수 - 고교별 인문/자연계열 각 50부 이내
발송기간	2023. 7. 10(월) - 문제지, 답안지, 가이드답안 신청고교로 발송
홈페이지 공개	2023. 7. 21(금) - 문제, 가이드답안 및 강평영상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PART I 단국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 2

PART II 논술고사 준비 Tip • 8

PART III 인문계열 논술고사 • 19

PART IV 자연계열 논술고사 • 91



PART I

단국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논술우수자전형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반영 비율	학교생활기록부(교과) 30% + 논술고사 70%		학교생활기록부(교과) 20% + 논술고사 80%		
출제 범위	자연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연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2024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310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	국어국문학과★	7	공과	전자전기공학과★	22	
	사학과★	7		융합반도체공학과	17	
	철학과	3		고분자시스템 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8
	영미인문학과	4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8	
법학	법학과★	16		토목환경공학과★	13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과	5		기계공학과★	14	
	행정학과★	7		화학공학과★	19	
	도시계획·부동산학부	8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1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			건축공학전공★	9
	상담학과	5	SW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19	
경영 경제	경제학과★	10		컴퓨터공학과	11	
	무역학과★	7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	
	경영학부★	34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6	
사범	한문교육과	4		사범	사이버보안학과	4
	특수교육과	6	수학교육과		9	
				과학교육과	4	

※ 2024학년도 대학 교육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는 비사범계열 학부(과)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 2024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3. 9. 12(화) 10:00 ~ 15(금) 17:00까지		
서류제출	2023. 9. 18(월)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논술고사	고사시간	2023. 11. 18(토) [인문계열]	2023. 11. 19(일) [자연계열]
	오전 [10:00~12:00]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고분자시스템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오후 [15:30~17:30]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전자전기공학과, 융합반도체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 고사장소: 개인별 입실시간 및 장소는 고사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16:00		

제출서류 [2023. 9. 5(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외국고교 관련 서류 제외)]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필요없음)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온라인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필요없음)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종등록자는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등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を 취소함)

※ 제출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 제출 불가함)

전형방법

전형명	학생부(교과)	논술	비고
논술우수자	20%	80%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 기본점수는 없으며, 학생부(교과)와 논술고사 점수를 일괄합산하여 선발함
- ※ 동점자 발생 시 논술고사 점수를 우선으로 함
-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반영교과가 1개라도 없거나 국내 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자는 논술고사 점수를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계열별 고사내용

계열	평가내용 및 출제영역	고사시간
인문	- 평가내용 :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3문제 -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120분
자연	- 평가내용 :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각 문제별 소문항이 있을 수 있음) - 출제범위 :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 출제범위는 해당 교육과정 내 공통교육과정을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계열(모집단위)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활용지표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	30	20	30	20		석차등급 (9등급) · 성취도	● 전학년 동일하게 적용 ▶ 재학생 : 3학년 1학기까지 ▶ 졸업생 : 3학년 2학기까지
자연	20	30	30		20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0	30	30	10			

- ※ 세부 반영방법은 반드시 2024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인
- ※ 한국사를 이수한 경우는 반영하되, 계열별로 반영하는 사회 또는 과학교과에 포함하여 반영함
- ※ 성취도는 보통교과에 한하여 반영함
-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석차등급을 반영함(성취도는 반영하지 않음)

■ 성취도 점수 환산등급

구분	환산등급			비고
성취도	A	B	C	- 성취도를 환산등급 표와 같이 석차등급으로 환산 후 석차등급 점수를 부여함 - 성취도 상위 3과목까지만 반영함
석차등급	1	2	5	

- ※ 해당 모집단위별 반영 교과목에 한하며,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편제에 따라 반영함
 ※ 성취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수단위가 큰 과목을 반영함
 ※ 성취도와 이수단위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반영비율이 큰 교과군의 과목을 반영함

■ 석차등급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	0.00 4.00	4.01 11.00	11.01 23.00	23.01 40.00	40.01 60.00	60.01 77.00	77.01 89.00	89.01 96.00	96.01 100
석차등급점수	100	99	98	97	96	95	70	40	0
학생부(교과) 성적 20% 적용 점수*	20	19.8	19.6	19.4	19.2	19	14	8	0

*논술 반영비율이 높고,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는 작아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함
 예)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20% 반영하므로 1등급과 6등급 학생의 실제 점수 차는 100점 만점 기준 1점

📍 장학안내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
성적우수(논술우수자)	모집단위별 입학 총점 상위 10% 이내	1개 학기 수업료 50% 지원
단국인재	논술우수자 각 계열별 수석 [인문계열, 자연계열]	4년간 수업료 50% 지원 (건축학전공은 5년간 지원)

※ 상기 장학금은 2023학년도 기준이며, 2024학년도 장학금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2023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최종등록자 성적 |

계열	고사시간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논술점수			등급(교과)			최종후보순위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오전	철학과		3	78	26.00	87.50	79.83	75.50	3.92	4.21	4.37	1
		법학과		16	485	30.31	81.00	75.56	72.50	4.15	4.75	5.29	1
		행정학과		8	251	31.38	83.50	81.69	79.50	4.03	4.97	6.04	1
		경제학과		10	279	27.90	85.00	80.60	77.50	3.39	4.63	5.57	-
		무역학과		7	189	27.00	83.50	79.64	77.00	3.34	4.52	5.37	-
		경영학부		31	1,011	32.61	83.00	75.29	71.00	3.64	4.60	5.59	8
	오후	국어국문학과		8	260	32.50	78.00	74.00	71.50	3.51	4.33	4.96	2
		사학과		8	254	31.75	78.00	73.44	69.50	3.66	4.80	6.13	4
		영미인문학과		5	155	31.00	78.50	76.40	73.50	3.48	4.25	4.87	1
		정치외교학과		6	206	34.33	80.50	77.58	75.50	3.64	4.48	5.41	-
		도시계획·부동산학부		8	290	36.25	80.00	76.00	73.00	3.63	4.43	5.2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	478	43.45	87.50	83.91	82.00	3.57	4.34	5.26	2
		상담학과		5	161	32.20	77.00	75.30	73.00	4.02	4.55	5.21	1
		한문교육과		4	102	25.50	87.50	85.13	83.00	3.85	4.62	5.49	-
		특수교육과		6	136	22.67	77.50	76.08	74.50	3.74	4.21	5.26	1
		인문 합계		136	4,335	31.88	87.50	77.43	69.50	3.34	4.56	6.13	-
자연	오전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9	132	14.67	75.50	53.94	42.00	3.59	4.45	6.08	6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8	105	13.13	68.50	59.38	47.50	3.19	4.27	5.31	2
		토목환경공학과		14	199	14.21	81.50	50.29	40.50	3.25	4.65	5.86	6
		화학공학과		19	317	16.68	87.00	63.86	48.50	3.11	4.69	7.15	10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10	158	15.80	65.50	55.75	47.00	3.58	4.65	5.95	1
			건축공학전공	9	146	16.22	81.50	58.33	45.00	3.53	4.31	5.87	4
		소프트웨어학과		19	388	20.42	82.00	62.71	50.00	3.40	4.58	7.18	12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	47	15.67	72.50	57.50	36.50	4.60	4.86	5.12	3
		사이버보안학과		4	61	15.25	54.00	50.00	47.00	2.94	4.25	5.26	1
		전자전기공학과		22	443	20.14	77.50	48.93	37.50	3.45	4.71	6.02	8
	오후	융합반도체공학과		17	327	19.24	61.50	44.41	37.00	3.12	4.87	6.67	12
		기계공학과		15	266	17.73	52.50	40.43	33.00	3.21	4.51	6.23	15
		컴퓨터공학과		11	269	24.45	71.00	52.25	38.50	3.46	4.40	5.97	10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6	110	18.33	60.50	46.58	38.50	3.66	4.40	5.38	6
		수학교육과		9	121	13.44	73.00	63.44	57.50	2.43	3.94	5.90	4
		과학교육과		4	67	16.75	49.50	38.25	34.00	3.91	4.62	5.69	-
		자연 합계		179	3,156	17.63	87.00	53.27	33.00	2.43	4.55	7.18	-

PART II

논술고사 준비 Tip



📍 논술고사 바로알기

**사교육
없이 준비 및
합격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위주로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는 것으로 논술고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문제를 검토합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의논술고사와 논술전형 자료집을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유형을
파악하면 준비가
쉽습니다.**

- 인문계열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올해의 출제방향을 파악해보세요.
- 자연계열은 수학문제만 출제됩니다.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 논술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논술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모의논술고사 안내

2024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난이도 등 출제경향은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기출문제와 더불어 모의논술고사 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와 출제유형이 논술고사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해 모의논술고사 출제 문제를 풀이하고 가이드답안을 철저히 분석한 뒤, 강평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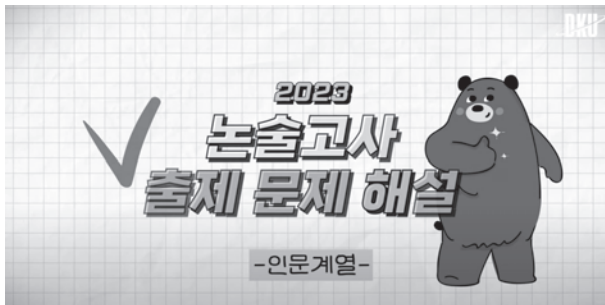
구분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3. 6. 19(월) ~ 20(화) [2일간]	고교별 선착순 접수 (고교별 인문/자연계열 각 50부 이내)
발송기간	2023. 7. 10(월)	문제지, 답안지, 가이드답안 신청고교로 발송
홈페이지 공개	2023. 7. 21(금)	문제, 가이드답안 및 강평영상 홈페이지 게재

- ※ **고교 교사만 접수 가능하며, 수험생 및 학부모 단독 접수는 불가함**(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함)
- ※ 대학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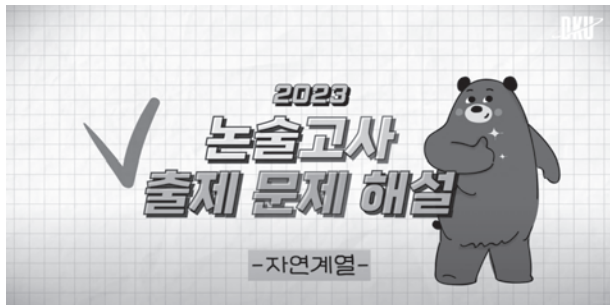
전년도 논술고사 및 모의논술고사 강평 영상

2023학년도 논술고사 강평 영상

인문계열



자연계열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강평 영상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고사 준비 로드맵

**전형관련
기본사항 점검**
2023년 5월~

-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2024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 내용 확인
- 모집단위별 인원 및 전년도 경쟁률 등을 정확히 파악
- 전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강평영상 학습

**모의논술고사
고교별 신청**
2023년 6월 19일~20일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 고교 교사만 접수 가능

**모의논술고사
응시 및 분석**
2023년 7월~

- 대학 제공 모의논술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별 자체 시행
- 모의논술고사 가이드답안을 활용하여 자체 채점, 강평영상 반복 청취, 스스로 보완점 찾기
-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참고하여 본격 논술고사 준비 돌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3년 9월 12일~15일

- 수시원서 접수
- 대학 간 논술고사 일정 중복 여부 확인

**시험장소/시간 확인 및
논술고사 응시**
2023년 11월 18일~19일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참조)

수험생 유의사항

- 고사 3일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고사장/고사시간 반드시 확인
- 수험생 유의사항, 준비물 및 교통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논술고사 당일 최소한 1시간 전 고사장 도착 권장
-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대학 인근의 교통량 폭주로 인해 정체현상 발생)
-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류만 가능(연필, 샤프 또는 색깔 있는 볼펜 사용 불가)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수험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사당일 지참
-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논술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고교교사의 제언

2023학년도 인문계열

구분	자문단	문항별 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1	1-2	2	3	
오전고사	이○○ 선생님(안산 G고교)	하	중하	중	중상	100%
	윤○○ 선생님(성남 S고교)	중하	중	중상	중	
	이○○ 선생님(수원 C고교)	하	중	중상	중상	
	채○○ 선생님(안양 P고교)	하	중하	중상	상	
오후고사	이○○ 선생님(안산 G고교)	중하	하	중	중상	
	윤○○ 선생님(성남 S고교)	중하	중	중	중	
	이○○ 선생님(수원 C고교)	중	중상	중하	중	
	채○○ 선생님(안양 P고교)	하	중하	중상	상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논제와 제시문(자료) 역시 고교 교과서 수준과 범위를 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단국대학교는 논술전형 도입 초기부터 모의논술고사와 더불어 채점과 해설을 맡은 교수님의 해설특강을 유튜브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술전형 자료집을 통해 최근 출제된 주제와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도 공개하고 있는 점은 수험생들이 사교육 없이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 선생님(성남 S고교)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급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논제를 여러 자료로 융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능력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논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대학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진 상태에서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가장 모범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2, 3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와 상관 없이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서 학습한 주제를 응시자 입장에서 심화 및 재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단국대학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개념을 사용하여 논술 문항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응시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선생님(수원 C고교)

■ 2023학년도 자연계열

구분	자문단	문항별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1	1-2	1-3	2-1	2-2	
오전고사	최○○ 선생님(수원 T고교)	중하	중상	중	중상	중상	100%
	오○○ 선생님(부천 S고교)	중하	중상	중하	중	중상	
	김○○ 선생님(수원 S고교)	중하	중하	중	중상	중상	
오후고사	최○○ 선생님(수원 T고교)	하	상	중	중	중상	
	오○○ 선생님(부천 S고교)	중하	중	중	중	중상	
	김○○ 선생님(수원 S고교)	중하	중	중	중하	상	

단국대학교의 자연계열 논술고사 제시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평가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으로 출제되어 선행학습이 필요 없이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 가능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는 매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난이도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답습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논술고사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풀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므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 선생님(수원 T고교)

끊임없이 바뀌는 입시 틈바구니에서 큰 변화 없이 곳곳하게 버티는 전형이 바로 논술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출제 교수들의 노력과 일관된 형식을 지키고 모의 논술, 해설 강의 영상 탑재와 같은 정보 공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연계 논술의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으며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 된 것입니다.

수학 공부하는 것은 너무 재미있고 잘할 자신도 있는데, 계속 바뀌는 입시 정책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몇 년째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단국대 자연계 논술'이 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 김○○ 선생님(수원 S고교)

합격생 tip-합격생이 알려주는 단국대 논술 준비 노하우

■ 인문계열

이름 : 나**

계열 : 인문

학과 : 철학과

“합격의 비법은 자기 탐학과 노력입니다”

저는 논술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수시 6개를 모두 논술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명성과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단국대학교만큼 훌륭한 학교는 없었기에 단국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글을 쓰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고, 타고난 것 또한 없었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논술 공부를 할 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글 자체를 읽는 방법,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글을 한 문장씩 스스로 탐사하며 내가 왜 이렇게 썼고,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건 이런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고쳐야 한다 등 개선할 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글을 쓸 때 개선할 점을 인식하며 글을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순간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방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단국대학교의 문제 형식은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주제 단어를 찾는 1번 문제는 제시문을 쓴 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려고 쓴 걸까?’를 고민하며 읽어야 헷갈리지 않고 주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도표 문제는 제시문 속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시문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정도로만 읽으면서 키워드를 적어가며 글을 읽고 썼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논술 공부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나 재능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노력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기에 정말 간절하다면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수험 공부가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며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이름 : 이**

계열 : 인문

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 가능한 글을 쓰기 위해선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수시 6장을 어떻게 해야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평소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여 논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논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논술은 마냥 창의적이지만 한 글쓰기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 글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제외한 시간에 오로지 정시 공부만 하는 것보다 논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3 시작 후 논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5월달 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논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친구들에 비하면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은 논술을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글의 ‘틀’을 익히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그냥 답지를 보고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어떤 스타일의 답변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매년 기출문제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면 어떠한 지문이 나오든 어떤 방향으로 읽고 써야 하는지 감을 익히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푸는 기출문제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틀을 익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논술전형의 경쟁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논술은 못 붙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술 전형은 절대 로도 전형이 아닙니다! 물론 내신 공부, 수능 공부도 하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 놀 때 마음 잡고 논술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답지만 보는 꼼수쟁이 공부가 아니라 ‘분석’하여 문제의 ‘틀’을 익히는 공부를 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계열

이름 : 진**

계열 : 자연

학과 : 융합반도체공학과

“대학 논술 기출문제들과 그해의 모의논술고사 문제들을 보면 문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논술이나 정시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동시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전형으로 논술우수자전형을 택했습니다. 수학 교과목에는 자신이 있었고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과 함께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며, 또 대학 논술 기출문제들과 그해의 모의논술고사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의 경향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발상과 풀이를 적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문제들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의논술고사 문제풀이와 더불어 가이드답안을 분석하고 강평 영상을 반복해서 학습한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7월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모의논술고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곤 했습니다. 기초수학 문제를 풀 때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도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년에 단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

이름 : 유**

계열 : 자연

학과 : 화학공학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므로 수학의 기본개념들을 탄탄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네!”

2학년 때부터 어떤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논술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며, 집에서 가까운 단국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단국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의 단국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들을 찾아 풀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국대학교의 문제 출제 유형과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들을 풀어보며 알아낸 것은, 단국대학교 논술 문제는 다른 대학처럼 매해 색다르고 처음 보는 공식들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수능 공부를 하며 봤던 공식이나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며 수능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논술은 수능 수학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수능이나 학교 내신성적을 챙기면서 했던 공부들처럼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므로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 풀던 문제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수학의 기본개념들을 탄탄히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학번 단국대 합격을 응원합니다!

📍 논술우수자전형 FAQ

Q1 논술우수자전형의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교과형 3문제가 출제되며,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 과정(공통교육과정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가 출제되며,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됩니다.

Q2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지원 시, 수능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요?

논술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은 필수 응시 사항이 아닙니다.

Q3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논술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의 반영비율은 20%이며, 논술고사 성적은 80%가 반영됩니다.

교과 등급 간 반영되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1등급 20점, 6등급 19점)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논술에 강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Q4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죽전 및 천안캠퍼스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논술우수자전형은 죽전캠퍼스에서만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복수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5 모집단위에 따라 출제 문제가 다른가요?

오전과 오후는 각각 다른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동일 모집단위는 동일 시간에 고사를 치르며 같은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PART III

인문계열 논술고사

-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가이드 답안
- 2023학년도 논술고사 및 가이드 답안



📍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 무엇을 평가하나요?

- 대학교육에 필요한 범교과적인 지식과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합니다.
- 기초사고력, 분석력, 종합력, 적용력, 비판력 등을 평가합니다.
-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단편적 지식이 아닌 논리적, 체계적 지식을 평가합니다.
- 답안 작성 시 국어 규범능력(맞춤법, 표준어, 문법적 문장)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남용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출제하나요?

- 평가목표를 명료하게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식과 사고의 성격을 구체화, 유형화했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국어, 사회 및 도덕분야를 중시하여 출제하며 특정 교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 변별력 있는 문제를 위해 청소년 권장 교양도서를 일부 활용합니다.
-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수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 고등정신 기능평가

고등
정신
기능
평가



■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출제문제의 유형제시를 통해 논술고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제시문은 서술문 혹은 도표(자료)가 제공됩니다.

문제 유형	문제형식(범례)	분량	시간
주제어 제시 및 요약형	제시문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20분
	찾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다른 제시문을 해석 및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설명형)	[개]와 [내]의 논지를 활용하여 [대]를 설명 또는 평가(비교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논지 활용 문제해결형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혹은 [개], [내]의 논지를 활용하여 [대]를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 2023학년도 기출문제 기준

■ 논술고사 문제유형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대]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배턴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外野手)*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scherzo)’*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찢찢매매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악」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연주자의 마음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驚愕)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 외야수(外野手) : 야구에서 외야를 지키는 우익수·좌익수·중견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스케르초(scherzo) : 베토벤이 미뉴에트 대신 소나타, 교향곡 등의 제3악장에 채용한 3박자의 쾌활한 곡.

출처 :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출제진 재구성)

[나] 파리 리옹역 동북쪽 바스티유 광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메닐 거리에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뒤크 데 자르가 있다. 고급 상가들이 들어선 멋진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도 원래는 고가 철도의 폐선 부지였다. 1970년대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폐허처럼 남겨진 이곳에 대해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와 지역 주민이 개발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90년 파리지 의회는 비아뒤크의 재개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세 시대 때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1년 만에 비아뒤크 데 자르의 재탄생이 이루어졌다.

1킬로미터에 달하는 상부 철길은 나무와 꽃이 우거진 산책로로 바뀌었고, 철길 하부 10미터 높이의 아치형 공간은 고급 상가로 개조되었다. 고급 상가에서는 미술품, 패션, 전시 기획, 조명 기구, 자수, 무대 장치, 귀금속, 유리 공예, 고급 가구, 디자인 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낡은 건물이나 시설,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구조물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고치고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초고층 빌딩 사이사이 아주 오래된 가게들을 볼 수 있다.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과 가게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예의이고 도리일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인들은 예부터 오래된 가게를 존중해

왔다. 베이징시와 중국 정부는 100년 이상 된 가게에 ‘라오쯔하오’^{*}라는 명패를 달아 준다. 이 명패가 걸린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 ‘내가 지금 100년 된 가게에서 밥을 먹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 라오쯔하오 : 노포(老鋪).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있는 가게라는 뜻의 중국어.

출처 : 고희진 외, 『고등학교 독서』(출제진 재구성)

[다]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禽獸)나 초목(草木)은 지혜도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도 의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옹(實翁)은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군.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禮義)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萬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다.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하는 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또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고 용(龍)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 쓰인다. 사람의 부류와 견주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대개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김은 사랑하는 마음의 근본이다.”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와 소나무와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仁)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知)가 없으며, 복식·의장의 제도와 예악(禮樂)·병형(兵刑)의 정사(政事)도 없거늘,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너의 미혹(迷惑)^{*}이 너무도 심하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며,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和)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廟社)에서 귀하게 쓰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동량(棟樑)^{*}의 귀중한 재목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는 만물에 도움 받지 않음이 없었다. 대체로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벌(蜂)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蟻)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拱鼠)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蜘蛛)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虛子)가 크게 깨달았다.

* 오륜(五倫) :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 오사(五事) : 외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 시초(蓍草) : 톱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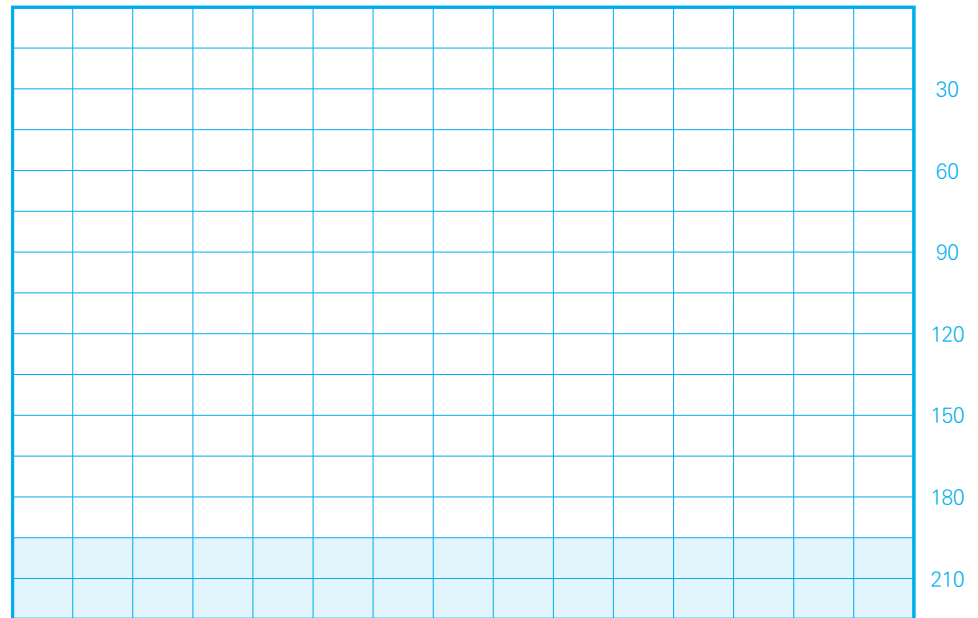
* 울금초(鬱金草) : 울금, 강황.

* 미혹(迷惑) : 정신이 헛갈리어 갈팡질팡 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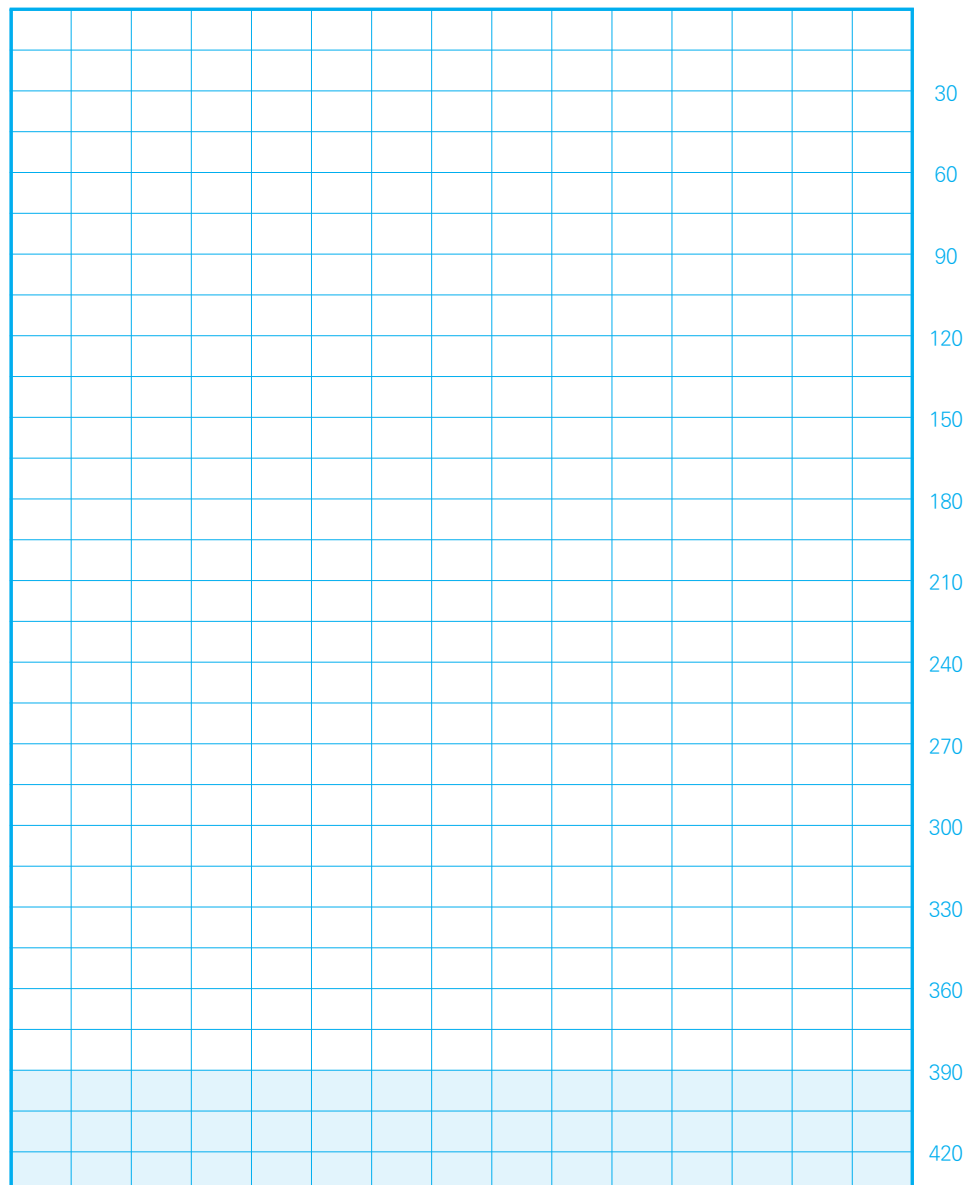
* 동량(棟樑) : 마룻대와 들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 홍대용, 「의산문답(鰲山問答)」

(200자 내외)
(10점)



(400자 내외)
(20점)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및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및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4)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체에서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부분에서 교술 문학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한 피천득의 「플루트 연주자」라는 수필 작품이다.
- 제시문 [나]는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전통을 보존한 채 새로움을 꾀하는 도시 풍경을 제시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창의적 읽기를 위해 활용된 정석의 「도시 생태계와 종 다양성」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사람, 금수, 초목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깨달음을 설명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에 관한 태도’ 부분에서 문학의 생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삼형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47~48쪽.
- [나] : 고형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97~98쪽.
- [다] : 홍대용 저, 김철희 역(1974), 『담헌서』 I, 민족문화추진회, 454~455쪽.
- 이송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302~304쪽 관련.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조화’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조화’를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체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설명한 글이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 모두가 지휘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자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도,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휘자를 포함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칭찬이나 혹평을 다 함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곡에 따라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찢찢매매 하는 빠른 대목이 있더라도,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우스운 대목이 있더라도,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청중을 놀래는 팀파니스트 연주라도, 이들 연주자들은 각자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여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기여한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조화’를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도시의 오래된 건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거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한 사례들을 제시한 글이다. 파리에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 뒤크 데 자르는 원래 고가 철도의 폐선 부지였다. 파리시와 지역 주민은 낡은 건물이나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식이 아닌, 중세 시대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베이징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건물과 가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과 가게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징시와 중국 정부는 100년 이상 된 가게에 ‘라오쯔하오’라는 명패를 달아 주는데, 이 명패가 걸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100년 된 가게에서 밥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조화’를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조화’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실옹(實翁)과 허자(虛子)의 문답을 통해 사람, 금수, 초목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깨달음을 설명한 글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금수나 초목과 같은 만물을 바라보면 사람이 귀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만물이 귀하다. 게다가 사람과 만물을 초월한 존재인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만물을 천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바라보면 안되고, 사람과 만물이 동등하다는 하늘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조화’를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조화’를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조화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체는 조화가 중요하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가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역할을 맡은 연주가일지라도 맡은 바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여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기여한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전통과 새로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풍경을 제시한 글이다. 파리에 있는 예술의 다리의 경우는 과거에 공예품을 제조하던 역사성을 살리면서 기존 건물을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변화시켜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를 이루었다. 한편 베이징에 많이 있는 오래된 가게들의 경우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꾀하였다.

[다]에서는 사람과 만물은 어느 한쪽이 귀하거나 천하지 않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천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물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과 만물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처럼, 사람은 만물을 동등하게 인식하여 만물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라]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며, 심미적 즐거움으로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에 인간은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예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예술은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한다.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된다. 예술 활동은 정제되지 못한 감정과 욕구를 정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며,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공감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예술은 삶을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예술은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미적 표현 이므로 삶과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인간과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 기법은 다양성의 토대가 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불러온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예술은 창작자와 관람자 사이의 상호 작용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관람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람자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창작자와 소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술 작품이 관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미 적 가치[美]와 도덕적 가치[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 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는 도덕주의 입장이 있다. 반면,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독립된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예술 지상주의 입장이 있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예술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한 수단이며 따라서 진보, 즉 인류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수단이다. 언어는 지금 생존해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대와 동세대의 선구자들이 경험과 사색으로 알아낸 일들을 모조리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예술도 또한 지금 살아 있는 최근 시대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현재의 뛰어난 선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모조리 경험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진보하여 보다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이 그릇되거나 불필요한 지식을 추방하여 이에 대치되는 진실한 것과 필요한 지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예술에 의한 감정의 발달도 저급하고 불량하며 또 사람들의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을 보다 선량하고 이 행복에 보다 필요한 감정으로 추방한다. 여기에 예술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내용면에서 볼 때, 예술은 이 임무를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앓을수록 점점 나쁜 것이 된다.

출처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다]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그는 ‘인간의 삶 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철학, 윤리, 종교 등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의 껍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고,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하며,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미학, 즉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니체 초기 미학의 핵심 주제인

‘예술가-형이상학’이다.

니체는 ‘예술가-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예술 충동으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제시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충동에 의해 인간은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구분 가능하고 산정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낸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며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취’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도취는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의해 인간은 세계의 근원적 모습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도취는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킨다.

* 아폴론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으로 법, 질서, 이성을 상징.

* 디오니소스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으로 무질서와 도취를 상징.

출처 : 『국어영역 독서』(출제진 재구성)

[라]



고호, <감자먹는 사람들>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찌죄죄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

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 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걸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중략)……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 양식(糧食) :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먹거리.

* 밀레 :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 프랑스의 화가. 농민에 대한 애정으로 농촌의 모습을 그렸다.

* 드 그루 : 샤를 드 그루(1825~1870). 벨기에의 화가. 밀레를 존경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다.

출처 : 방만호 외, 『고등학교 독서』

(3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 [다], [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및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48~149쪽.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55~156쪽.
- [나] : 톨스토이 저, 이철 역(2019),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202쪽.
-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52쪽 관련.
- [다] : 김태석 외(2022),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96쪽.
- 서혁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좋은책신사고, 118~119쪽 관련.
- [라] : 방만호 외(2018),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145~147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의 첫 번째 제시문은 예술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여 감정과 욕구를 정화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통찰하며 타인과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예술은 인간 자신의 삶과 세계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셋째, 예술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가]의 두 번째 제시문은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도덕주의가 예술이 도덕적 가치의 실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예술 지상주의는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며 독립된 가치라고 주장한다.

[나]에서 예술은 과거와 현재의 타인들이 경험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또한 예술은 지식이 발전하듯 감정을 발달시킨다. 발달된 감정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선량한 감정이며 예술은 이 선량한 감정의 전달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위한 수단이 된다.

[다]는 철학, 윤리, 종교가 인간의 삶을 가두거나 포장하거나 회피하는 반면, 예술은 인간의 생생한 현실을 직시한다는 니체의 입장을 나타낸다. 예술이 직시한 인간의 삶에는 아폴론적 예술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 충동이 있다. 아폴론적 충동이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개별화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내는 충동이라면,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무질서를 향하며 개별화를 넘어서 세계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추구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첫 번째 제시문에서 세 가지 효과, 두 번째 제시문에서 두 가지 입장을 [나], [다] 각각과 연관시키고 그 연관 근거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5점)

[라]는 농부들의 삶을 표현하는 회화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먼저 농부들의 삶에 대한 그림은 농부들의 삶이 육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양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인정할 만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를 때 예술은 농부들의 삶이 정직한 삶이라는 도덕적 교훈을 준다. 한편, 이 그림은 농부들의 삶이 불결하거나 천한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며, 포장된 교양인들의 삶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깨닫게 해준다.

◆ 채점 기준

- [라]에서 예술이 농부들의 삶의 정직성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주장, 예술이 농부들의 삶을 직시하고 그 자연스러움을 긍정하게 해준다는 주장을 끌어내어 각각을 [나]의 입장, [다]의 입장과 연관시켜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제시문 [나]는 예술이 감정 소통의 수단이자 인류 진보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술은 선량한 감정을 발달시키고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도덕주의 입장에 가까우며, 예술이 감정을 정확하고 도덕적 감수성을 함양하며, 인간과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예술을 철학, 윤리, 종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면서, 예술만이 인간의 생생한 현실적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는 [가]의 예

술 지상주의 입장을 취하며, 인간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술의 효과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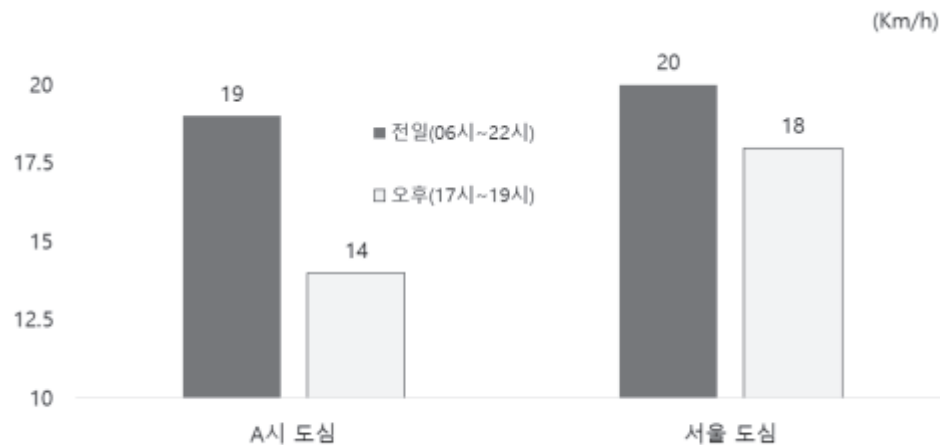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라]에서는 농부들이 육체 노동으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삶을 산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농부의 정직한 삶에 감화되기를 바라는 도덕주의 입장과 가깝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라]에서는 농부의 생생한 현실의 삶을 담고 싶어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농부의 삶은 더럽거나 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술이 인간의 삶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을 택하는 것이다.

 Note

문제 3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다]의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라]의 설명 하나를 찾아, [다]의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시오. (단 각각의 문제에 대응하는 [라]의 설명은 서로 달라야 함.) (600자 내외) (40점)

[가]

〈A시와 서울시 도심의 자동차 평균 속도 비교〉



출처 : 『○○의소리』, 2016. 8. 29.

〈A시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동차 등록 대수	334,426	384,117	435,015	467,243	500,197	553,578	596,215	615,342	658,594

출처 : ○○통계포털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

	전국	A시
2010	0.36	0.44
2019	0.46	0.89

〈세대당 자동차 등록 대수〉

	전국	A시
2010	0.90	1.12
2019	1.05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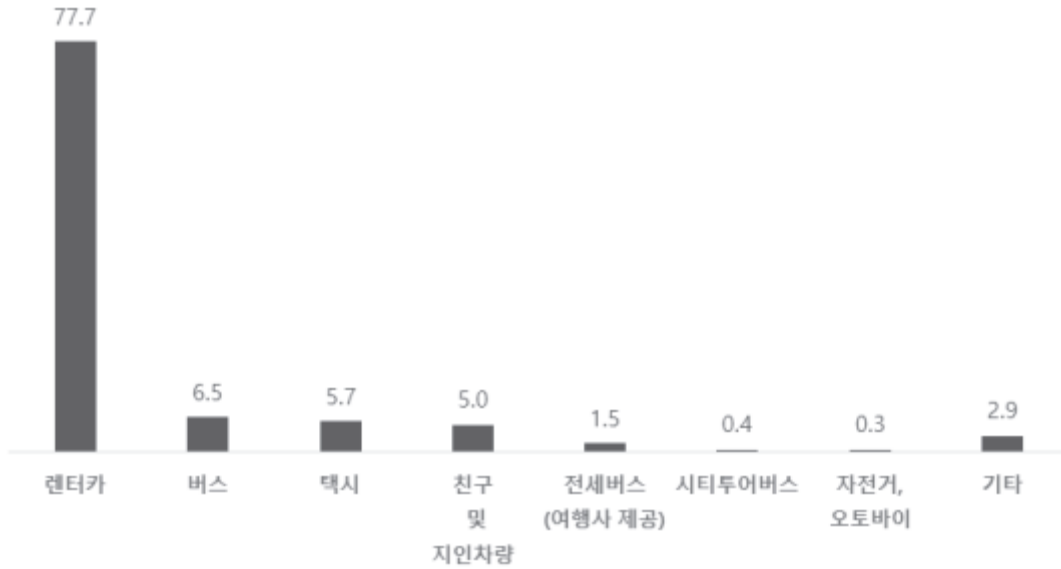
출처 : 지방통계청

〈A시 관광객 추이〉

시기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관광객 수	46만 8,016명	79만 3,768명	89만 3,326명	108만 2,861명	113만 6,452명

출처 : ○○관광협회

.....〈A시 방문 시 주요 이용 교통 수단〉..... (단위 : %)



출처 : ○○관광공사 보고서(2020)

.....〈A시 전체 교통사고 중 렌터카 사고 비율 추이〉.....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8.6	9.2	8.8	11.3	11.9	11.9	12.1	13.8	12.3	13.4

출처 : ○○경찰청

[나] A시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렌터카 수급 계획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거친 뒤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 현재 3만 2,100여 대의 렌터카를 1차적으로 2만 5,000대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감축 목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A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A시 차량 적정 대수 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용역 보고서에서 A시 지역 시가지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렌터카가 지목됐으며 수급 조절을 하지 않으면 2025년 5만 1,000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A시 지역에서 차량 100대 이상, 차고지 등을 확보하면 렌터카 사업 신고를 했지만 수급 조절 계획에 따라 당분간 신규 렌터카 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차령 초과 렌터카의 신규 보충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한이 남은 차량을 폐기하고 신규로 보충하지 않으면 내년에 7,000여 대가 줄어든다. A시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장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이번에 A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권한도 넘겨받으면서 교통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18. 3. 6.

[다] (문제 1)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말~8월 초 성수기 기준 A시 중형차 렌터카 비용은 평균 1박당 17만~23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10만 원에도 대여가 가능했던 것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A시 B렌터카 업체의 경우 C차량 기준 6박 7일 대여 요금이 130만 원에 달한다. 예년보다 30~5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중략).....

A시 렌터카 비용이 폭등한 것은 A시 관광객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렌터카 총량제'로 공급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에만 1,200만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올해도 이미 500만 명이 방문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500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관광 수요가 상당히 회복된 셈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2. 6. 11.

(문제 2)

렌터카 총량제가 멈춰 버린 이유는 일부 기업들이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A시가 패소하면서 강제할 수단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A시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 운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강제할 수단을 잃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A시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의 감축 참여도 저조해졌다. A시는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관광 진흥 기금 감면 제한, 셔틀·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차량을 줄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일보』, 2022. 5. 5.(출제진 재구성)

(문제 3)

A시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형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지역 소규모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략).....

A시는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A렌터카와 B렌터카, C렌터카, D렌터카, E렌터카 5개 대형 자동차 대여 업체는 지난 15일 A시를 상대로 차량 운행 제한 공고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영업소 9개사가 A시 감차 정책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대형 업체일수록 자율 감차 부담이 커진다는 A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두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 5. 23.

[라] (설명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다. 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는 물론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사회 갈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설명 2)

어떤 상품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반면, 어떤 상품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요량에 별 변화가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특성, 대체재의 존재, 가격 변동에 수요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필수품이거나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 사치품이거나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또한 가격 변동에 수요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갑자기 소비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설명 3)

경제적 유인이란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들은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40점)

[illegible]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관련한 문제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와 같은 요소를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자료 출처

- [가] : 이승록, 「제주 교통혼잡, 서울 도심보다 심각 …… 경제 성장 ‘둔화’ 경고」, 『제주의소리』, 2016. 8. 29.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78쪽 관련.
 제주관광공사(2020),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117쪽.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79쪽 관련.
- [나] : 임재영,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9월말부터 시행」, 『동아일보』, 2018. 3. 6.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58쪽 관련.

- [다] : 최효정, 「“차라리 내 차가 더 싸.” 제주 렌터카 가격 폭등에 ‘자차 탁송’유행」, 『조선일보』, 2022. 6. 11.
 - 김중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62쪽 관련.
 - 강재병, 「사실상 멈춰버린 ‘렌터카 총량제’ …… 특단 대책 절실」, 『제주일보』, 2022. 5. 5.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9쪽 관련.
 - 임성준, 「제주 ‘렌터카 총량제’ 반기 든 대형업체들」, 『세계일보』, 2019. 5. 23.
 -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188쪽 관련.
- [라]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85쪽.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56쪽.
- 김중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3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로 인해 [나]의 정책이 시행되고, [나]로 인해 [다]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에서 교통 혼잡, 자동차 등록 수 증가, 렌터카 이용 관광객 증가, 렌터카 사고 비율 증가 등으로 최근 A시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가]에서 제시된 A시 교통 혼잡 주요 원인으로 렌터카를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렌터카 총량제가 제안되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로 인해 [다]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5점)

[다]의 문제와 [라]의 설명을 하나씩 상호 연관 지어 [다]의 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문제 1 : 설명 2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관점에서 문제 1을 설명하고, 공급량의 재조정, 대체재의 공급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문제 2 : 설명 3의 ‘경제적 유인’ 관점에서 문제 2를 설명하고, 편익 증가와 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렌터카 업체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문제 3 : 설명 1의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문제 3을 설명하고,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교통 혼잡, 자동차 등록 수 증가, 렌터카 이용 관광객 증가, 렌터카 사고 비율 증가 등으로 최근 A시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A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는 [다]에 제시된 바와 같이 렌터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렌터카 자율 감축에 대한 저조한 참여율, 렌터카 총량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 2를 참고할 수 있다. A시의 경우 렌터카의 대체재가 부족하고, 짧은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으로 인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A시는 렌터카 총량제의 숫자를 재조정하거나, 대체 가능한 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 3을 참고할 수 있다. A시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적 감축을 기대하기보다 업체의 편익을 더욱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더욱 감소시키는 등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 1을 참고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Note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대]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저는 가능한 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소설을 통한 공감은 연주에도 좋은 영감을 줍니다. 절 가르쳐 주셨던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께서로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지요. 제가 열두 살 때의 일이었어요.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그 책을 제게 주시면서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꼬마여서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 듯합니다.

얼마 전 한국 공연을 앞두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세 살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다시 봐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악보도 연주할 때마다 다른 곡이 되는 것처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안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숙한 부인인 안나가 청년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되고, 금지된 사랑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그 감정의 변화가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톨스토이가 저를 안나의 머릿속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돼 버린 결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설 「제인 에어」도 좋아하지만 「안나 카레니나」가 훨씬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인 에어」에는 제인만 있지만 「안나 카레니나」에는 안나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를 사랑했던 왕녀 키티, 안나의 남편인 카레닌 등 여러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작품은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며 살아간다는 점을 제게 깨닫게 해 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소설을 읽은 때는 1996년 1월 슈만 첼로 협주곡 연주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곡 해석을 하면서 안나의 심리 상태를 떠올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2악장을 연주할 때 저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안나의 모정을 떠올렸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자식을 둔 여인이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톨스토이를 알게 됐고 톨스토이의 『예술론』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술이란 예술가가 경험으로 느낀 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라고요.

저는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을 연주하기 위해 23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연주회에서는 제가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싶습니다.

출처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출제진 재구성)

[나]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채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런 문장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무인들이 큰 칼을 한 번 휘둘러서 사태를 정리해 버리듯이 한 번으로 끝내 버리는 문장을 이순신은 쓰고 있더군요. 그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 그러나 나한테 그것은 놀라운 문장이었습니다. 암담한 패전 소식이 육지로부터 전해 오는 날, 이순신은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 씁니다. 아, 좋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죽이는 문장입니다. 슬프고 비통하고 곡을 하며 땅을 치고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비록 육지의 패전 소식이 전해 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그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형용사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 본들,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를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수사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죠. 내가 사랑하는 주어와 동사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중략)……

이순신은 또 일기에다, “오늘 어떤 녀석이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라고 썼습니다. 기막히지요.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 그제 목을 베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가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죠.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 그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끼워서 성 앞에 걸었다. 그래 놓고 그다음 문장을 계속 써요. “저녁때 바람이 불었다.” 해군들은 바람 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배들을 바닷가에 나란히 자동차 세우듯이 대 놓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배들이 서로 흔들려서 배들끼리 부딪칩니다. 바람이 불면 해군은 배를 끌어서 물 위로 올려놔야 배가 부서지지 않죠. “저녁때 바람이 불었다. 자는 병사들을 깨워서 물가로 내려보내서 배를 끌어 올리라고 지시했다.”라고 씁니다. 전쟁에서는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 놈 하나를 죽였다는 것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써 버리고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수사,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그의 문장은 삼엄한 긴장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압이 높은 문장입니다. 볼트가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장입니다. 만지면 전기가 올 것처럼 찌르찌르 하는 문장이죠. 문과 대학에서는 그런 문장을 안 가르치더군요. 문과 대학에서는 셰익스피어, 밀턴, 워즈워스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문장이었지만 내가 읽은 『난중일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출처 : 이성영 외, 『고등학교 국어』(출제진 재구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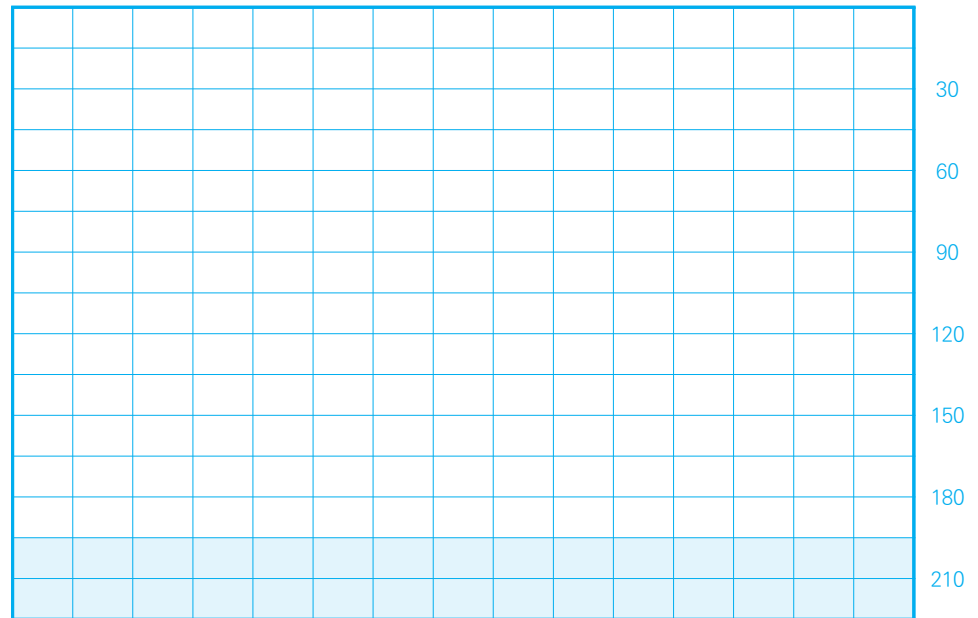
〈미소〉

좋아야 결과도 좋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진심의 애정이 사진으로 나타나야 감동도 생긴다. 멋진 사진만 얻을 요량으로 사람을 피사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사진 속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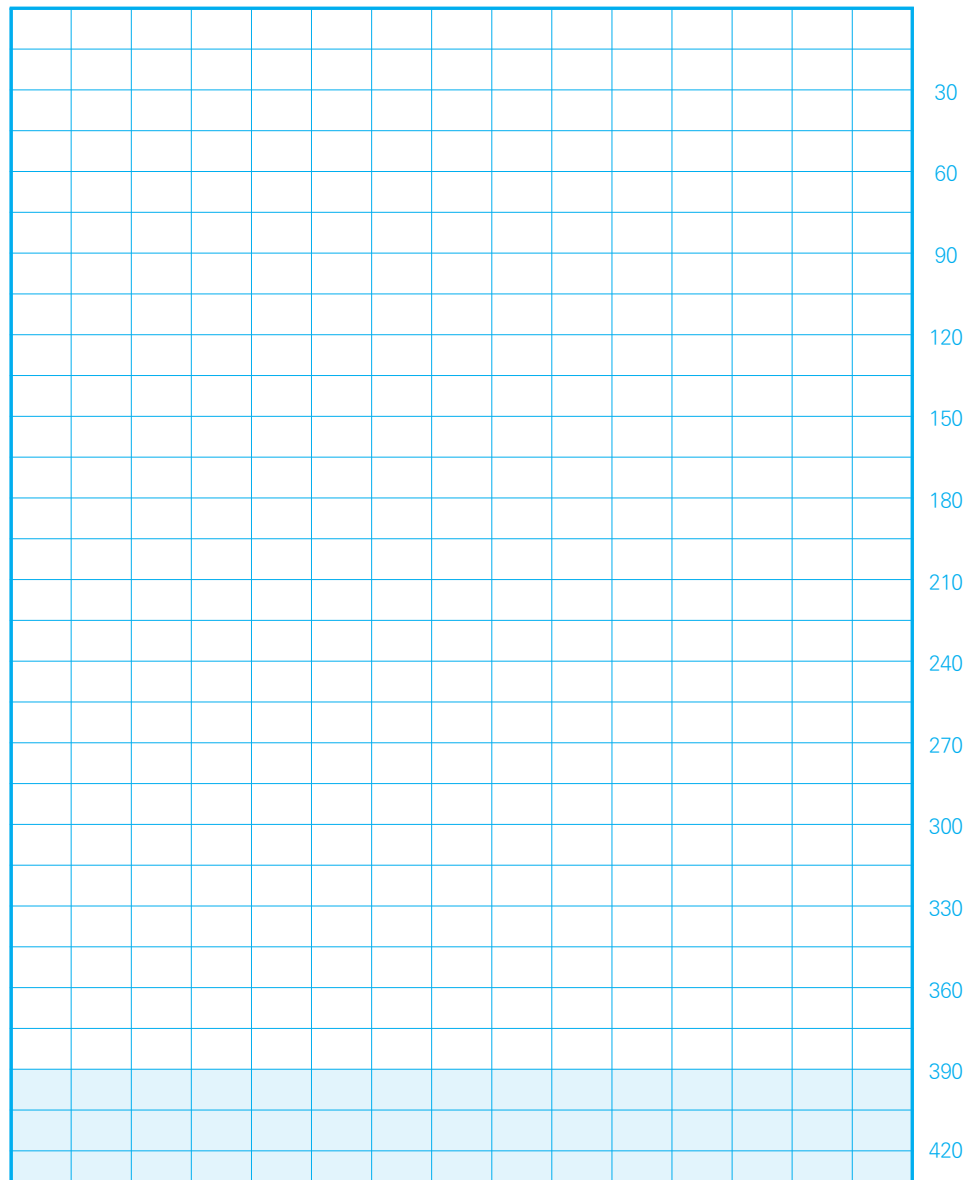
어디 시장의 할머니뿐일까. 사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할머니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까지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야말로 힘 있는 사진이 된다.

출처 : 윤광준, 『내가 찍고 싶은 사진』

(200자 내외)
(10점)



(400자 내외)
(20점)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소설을 통한 공감에 좋은 영감을 주어 연수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본질’ 부분에서 문학의 즐거움과 가치의 체험을 위해 활용한 장한나의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사실에 입각한 이순신의 『난중일기』 문장의 강력함에 대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에 맞는 표현’ 부분에서 상황에 맞는 문장 쓰기를 위해 활용한 김훈의 『회상』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인간에 대한 진심의 애정이 드러나야 감동이 생기고 힘 있는 사진이 된다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술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서 예술 분야의 글을 통해 삶의 문제와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제시문은 윤광준의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김창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32~33쪽.
- [나] : 이성영 외(2020),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30~231쪽.
- [다] : 윤광준 글·사진(2015), 『내가 찍고 싶은 사진』(e-Book), 웅진지식하우스, 60쪽.
- 한철우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비상교육, 112~118쪽 관련.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감’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공감’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소설을 통한 공감이 좋은 영감을 주어 연주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리고 소설의 주인공에 공감하게 된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면 톨스토이가 소설의 주인공인 안나의 머릿속으로 나를 밀어 넣는 것 같아서,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돼 버린 안나에 공감하여 너무 가슴이 아프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며 만나고 헤어지는 소설의 얘기를 통해,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며 살아간다는 점에 공감하게 된다. ‘나’는 협주곡 연주를 준비하며 연주곡을 해석할 적에 안나의 심리 상태를 떠올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악장을 연주할 때 ‘나’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안나의 모정을 떠올렸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예술가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 또한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 주고 싶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사실에 입각한 문장의 강력함에 대한 글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는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다. 군더더기가 없이 한 번으로 끝내 버려 아무런 재미도 없고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이지만, 매우 놀라운 문장이다. 압담한 패전 소식이 전해 왔을 때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만 쓴다. 비록 육지의 패전 소식이 전해 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어떠한 형용사나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 본들 사실에 입각한 이 짧은 문장에는 당할 도리가 없다. 이것은 수사학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이다. 전쟁에서는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의 목을 베어 죽인 일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써 버리고, 그 뒤에 바람이 불자 배를 물 위로 끌어 올리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문장을 바로 써 버린다.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여 어떠한 수사나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없이 밋밋하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삼엄한 긴장을 느낀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인간에 대한 진심의 애정이 드러나야 감동이 생기고 힘 있는 사진이 된다는 글이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좋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사진을 찍을 때는 대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본 순간의 감흥을 스쳐버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사진에는 노점상 할머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할머니에게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할머니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순간에 찍은 사진은 내용이 겹돌지 않게 된다. 할머니 미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사진 속 할머니의 심성을 연상하게 된다. 사람을 피사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사진 속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여 주는 사진은 강한 여운을 준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감이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리고 소설의 주인공에 공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감은 연주자에게 좋은 영감을 주어 연주에 도움이 된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예술가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주자인 나 또한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 주고 싶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사실만을 서술한 이순신의 문장을 통해 그의 감정과 처지에 공감한 글이다. 비통한 패전 소식이 전해 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만을 진술하는 이순신의 감정에 공감한다.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를 죽인 사실을 담담하게 써 버리고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을 써 버린 이순신의 처지에 공감한다.

[다]는 대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감하여 찍은 사진이 감동과 여운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사진사는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 할머니에 깊게 공감했기 때문에 사진 속 할머니 미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할머니의 심성을 연상하게 된다. 피사체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진 속 인물에 공감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보여 주는 사진은 강한 여운을 준다.



Note

문제 2 [가]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모두 비판하고, [라]의 강 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 각각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바탕으로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감정 중심 윤리이다.

“인간은 본성상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최고의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중략)……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중략)……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 (중략)……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각각의 구성원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만 간주되며, 그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혹은 한 사람 이하로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그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쾌락 계산법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벤담의 이러한 양적 쾌락주의는 곧 평등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이처럼 벤담은 ‘공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도덕의 목적이란 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노예 제도, 여성의 종속, 복수법*, 동물 학대 등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관행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벤담의 이러한 급진적 개혁주의는 수많은 비판에 부딪혔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히 욕구의 만족인 쾌락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적·관능적 쾌락과 인간적·지적 쾌락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그 양의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 복수법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와 같이 가해자에게 동일한 복수를 허용하는법을 말한다.

출처 :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한다. 이분법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대지 윤리는 단순히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쉬운 일처럼 들린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들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 대한 우리

의 사랑과 의무를 노래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분명히 흙은 아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흙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분명히 물은 아니다. 우리는 물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명 식물은 아니다. 우리는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전체 군집을 절멸시킨다. 분명 동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종의 동물을 몰살시켜왔다. 물론 대지 윤리가 이들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지 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중략)……

윤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할 빗장은 바로 이것이다.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출처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출제진 재구성)

[라] 강 노인이 이제는 재박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발 때문이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낚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 줄 자식은 없어서, 건재상과 이층에 세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 노인 땅이 시가 몇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 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 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중략)……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귀나 갈아먹는대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휠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르시기 강 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중략)……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 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 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 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답에야 어찌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씹씹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 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울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중략)……

다음 날 아침, 강 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밭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려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멸피’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 나와 잠깐 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 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보니 어제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육이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텅텅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꽃아 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 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 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쬘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용기종기 모여서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 노인은 킁킁 헛기침을 해 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출처 : 박영민 외, 『고등학교 국어』

(3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2) 자연환경과 인간’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4) 과학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박찬구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148~149쪽.
- [나]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47쪽.
- [다] : 알도 레오폴드 저, 송명규 역(2000), 『모래 군(郡)의 열두 달』, 도서출판 따님, 246~247쪽, 267쪽.
-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41쪽 관련.
- [라] : 박영민 외(2018),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72~283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에 대해 설명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윤리이다. 즉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쾌락과 고통에 있다. 또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적 윤리이다.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이익만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동등하다. 벤담은 이러한 쾌락 평등주의의 원리에 따라 급진적이라는 당대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윤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예, 여성,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나]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설명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 인간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다]에서는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를 통해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제시한다. 대지 윤리는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윤리관이다. 이 윤리는 자연이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인류의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 생명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있다.

◆ 채점 기준

- [가]에서 노예, 여성, 동물까지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쾌락 평등주의의 주장을 활용하여 [나]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활용하여 [다]의 대지 윤리가 주장하는 생명 공동체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라]에서는 지주 강 노인이 자신이 농사짓는 땅에 대해 갖는 태도를 묘사한다. 이 땅은 강 노인에게 가족을 건사할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 노인이 땅과 땅의 작물에 가지는 애착은 땅이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메마른 작물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물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대지 윤리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강 노인은 땅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 입장과 대지 윤리의 입장 모두를 보여 주고 있다.

◆ 채점 기준

- [라]에서 강 노인이 땅을 안 팔고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결국 가족의 생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자연은 인간의 도구라는 인간 중심주의와 연관 지어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라]에서 강 노인이 고추 모종에 물을 줘서 목을 축여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자연의 존속할 권리를 존중하는 대지 윤리와 연관 지어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나]의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보다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며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의 공리주의는, 쾌락은 양에서만 차이가 날 뿐 동등하다는 평등주의에 따라서 윤리의 범위

를 노예, 여성, 동물에까지 확대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해야 할 근거가 없다. [다]의 대지 윤리는 생명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정도를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가]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들의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라]에서 강 노인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쌀과 채소를 사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나]의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땅을 자기 가족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 노인이 고추 모종에 물을 줘서 목을 축여 줘야겠다고 마음먹는 장면은 강 노인이 [다]의 대지 윤리의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마른 작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식물이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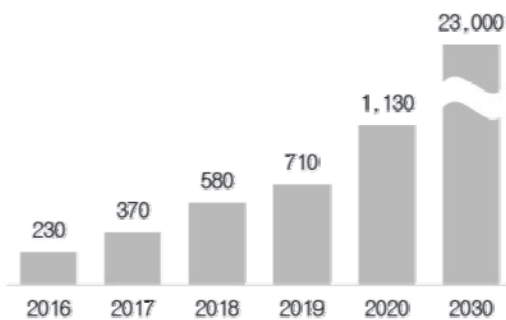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한 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다]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라]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600자 내외) (40점)

[가]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등 선진국이 이제는 거꾸로 무역의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다. 과거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던 개발 도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이다.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新) 보호 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업 통상 자원부와 세계 무역 기구(WTO)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쏟아 낸 무역 제한 조치는 월평균 2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으로 90건의 무역 규제를 내놨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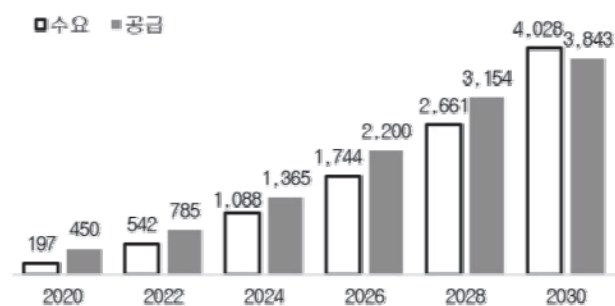
(단위 : 만대, 2030년은 전망치)



출처 : 『서울경제』, 2021. 4. 30.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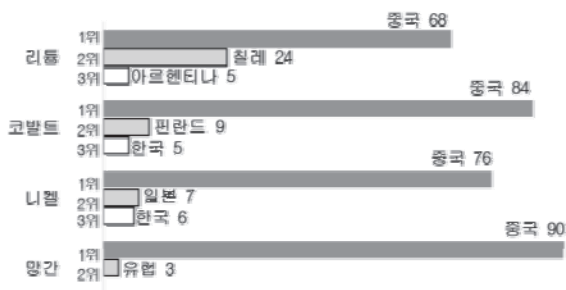
(단위 : GWh)



출처 : 『머니투데이』, 2021. 10. 13.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국가 비중>

(단위 : %)



* 제련 :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추출하여 정제하는 일.

출처 : 『한겨레』, 2022. 10. 1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 일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금 공제
-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 전기차 구매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금 공제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제공
-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조달될 경우 보조금 혜택 제외

*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

출처 : 『연합뉴스』, 2022. 8. 9.(출제진 재구성)

[다] <상황 1>

<한국의 미국, 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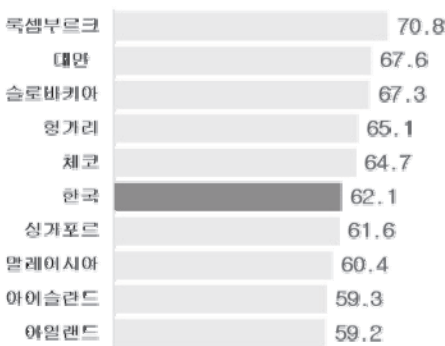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액			비중	
	전체	중국	미국	중국	미국
2022년 상반기	350,455	81,401	54,943	23.2	15.7
2021년 상반기	303,135	76,122	46,502	25.1	15.3
2021년	644,400	162,913	95,902	25.3	14.9
2020년	512,498	132,565	74,116	25.9	14.5
2019년	542,233	136,203	73,344	25.1	13.5
2018년	604,860	162,125	72,720	26.8	12.0

출처 : 『연합뉴스』, 2022. 7. 25.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상위 10개국>

(단위 : %)



* 무역 의존도 :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 소득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액의 비율.

출처 : 『연합뉴스』, 2018. 7. 6.

<상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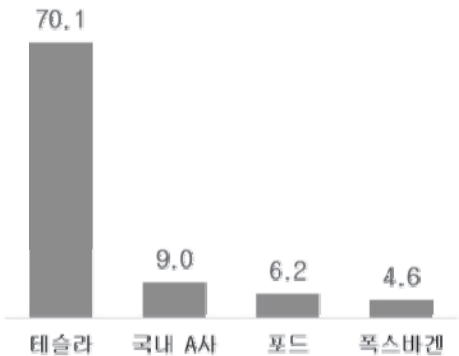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금 공제 받는 전기차 모델>

업체	소속 국가	모델명
테슬라	미국	모델 Y, 모델 3 일부
포드	미국	이스케이프 PHEV, F시리즈, 무스탕마흐 E, 트랜시트밴
링컨	미국	에비에이터 PHEV, 코르세이르 플러그인
지프	미국	체로키 PHEV, 랭글러 PHEV
크라이슬러	미국	퍼시픽카 PHEV
리비안	미국	EDV, R1S, R1T
루시드	미국	에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EQS SUV
BMW	독일	X5, 330e(2022년형), 330e(2023년형)
아우디	독일	Q5
볼보	스웨덴	S60
닛산	일본	리프 2022년형, 리프 2023년형

출처 : 『중앙일보』, 2022. 8. 25.(출제진 재구성)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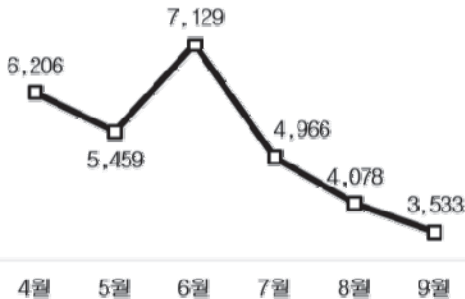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헤럴드경제』, 2022. 8. 18.

<2022년 국내 A사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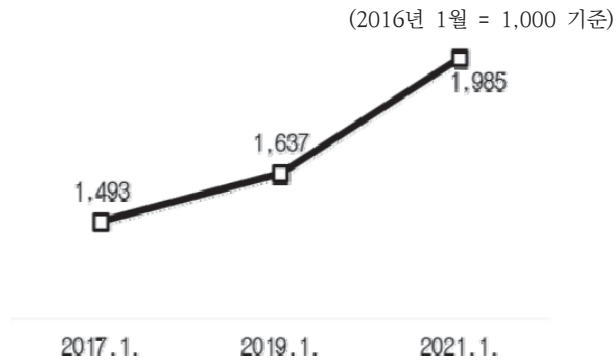
(단위 : 대)



출처 : 『서울경제』, 2022. 10. 5.

〈상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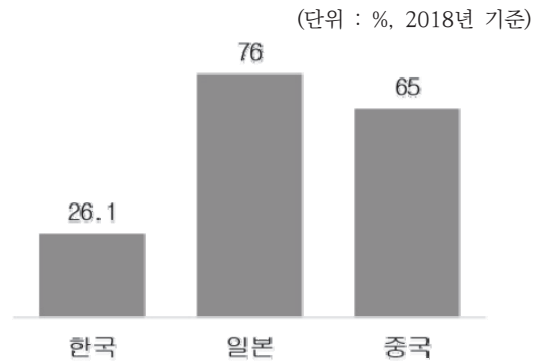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 광물종합지수 :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처럼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 15종의 가격 수준을 종합해 보여주는 지수.

출처 : 한국광해공업공단, 『광물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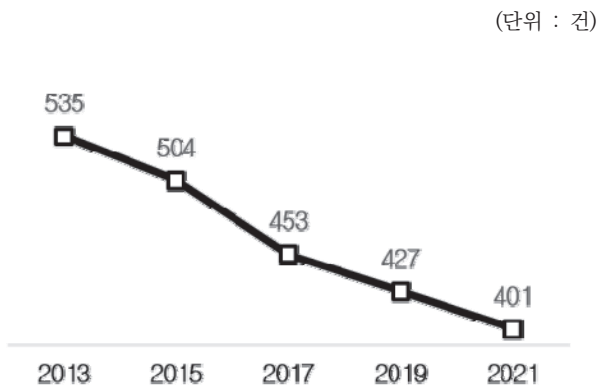
〈광물 자주 개발률*〉



* 광물 자주 개발률 : 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광물 자원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광물 자원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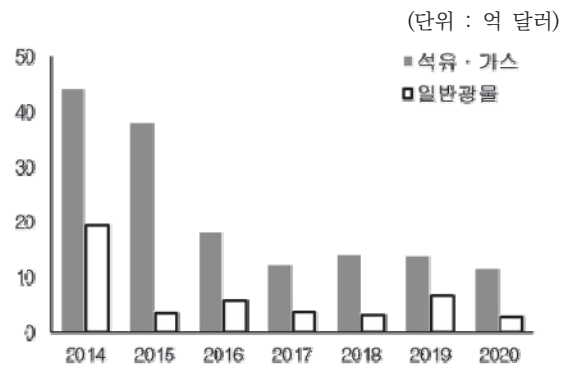
출처 : 『서울경제』, 2022. 3. 24.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건수〉



출처 : 『서울경제』, 2022.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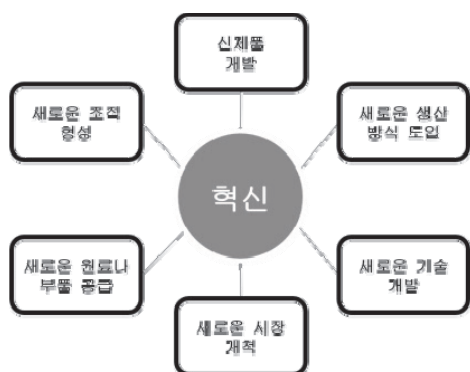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출처 : 『중앙선데이』, 2022.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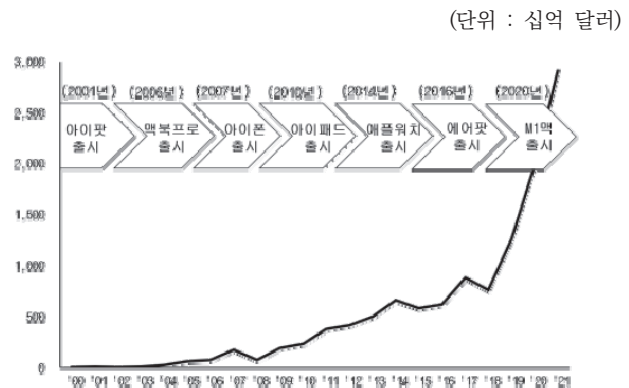
[라] 〈자료 1〉

〈기업 혁신의 종류〉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시가총액 변화〉



출처 : 『한국일보』, 2022. 1. 4.(출제진 재구성)

〈자료 2〉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경제력 회복을 위해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이 무렵 세력을 확장하는 후금과 대치하던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하였으나, 당시 강성해진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출처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고종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친서 전달, 특사 파견, 비공식 접촉, 국제기구 가입, 망명 정부 구상 등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종은 1904년 1월 16일 전시(戰時) 국외 중립 선언이 담긴 친서를 이탈리아 국왕 등에게 전달하였고, 1905년 칙령을 발표하여 대한 적십자사를 출범시키며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자료 3〉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 전략〉

구분	중국	일본
투자 기간	2016~2018년	2017~2019년
규모	600억 달러	300억 달러
내용	인프라 정비,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인재 육성
진출 전략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21세기형 실크로드 '일대일로' 완성	동·남중국해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 대비해 우군 확보, 일본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
주도해 온 회의체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기구 조성	1993년 아프리카개발 회의(TICAD) 구상·개최

출처 : 『국민일보』, 2016.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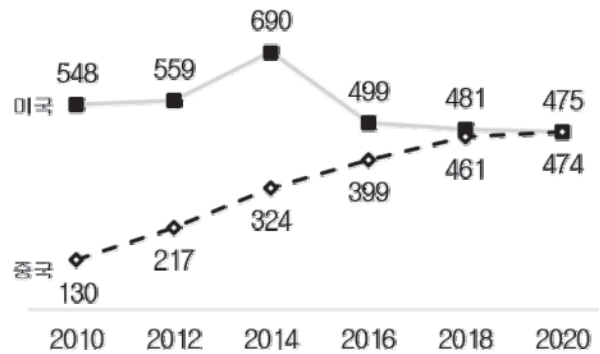
〈매년 1월 중국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국〉

2022년 (예정)	에리트레아, 케냐, 코모로
2021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2020년	이집트, 지부티, 에리트리아, 브룬디, 짐바브웨
2019년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잠비아, 세네갈
2018년	앙골라, 가봉,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출처 : 『조선일보』, 2022. 1. 3.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누적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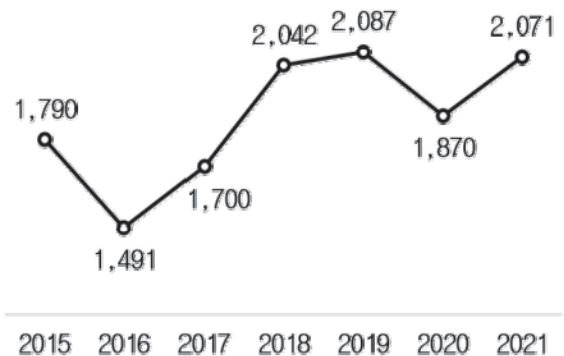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출처 : 『서울경제』, 2021. 11. 29.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

(단위 : 억 달러)



출처 : 『조선일보』, 2022. 1.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은 석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구리, 코발트 등이며, 에너지 자원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기니만 연안의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금, 다이아몬드, 망간, 크롬 등의 자원도 풍부하다. 구리와 코발트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잠비아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구리와 코발트가 풍부하여 ‘코퍼 벨트’라 불린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자원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 박철웅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

(40점)

(600자 내외)

(40점)

A blank graph grid with a vertical axis on the right. The axis is labeled with values from 30 to 660 in increments of 30. The grid is 15 units wide and 20 units high. The bottom 4 units (from 600 to 660) are shaded light blu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를 함께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영역의 성취기준 [10한사01-05]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를 국내 정치 운영과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탐구한다.”와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영역의 성취기준 [12세지07-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자원개발의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고 환경 보존이나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라는 입장에서 평가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자료 출처

- [가]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49쪽.
- [나] : 박성규, 「쑥쑥 크는 전기차 시장 …… “2030년엔 10대 중 1대”」, 『서울경제』, 2021. 4. 30.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78쪽 관련.
 - 김성은, 「282조원 쏟아 부었지만 …… “2030년까지도 전기차 배터리 부족”」, 『머니투데이』, 2021. 10. 13.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63~64쪽 관련.

- 안태호, 「중국이 꼭 잡은 ‘배터리 광물 제련’ …… IRA로 한국에 기회 올까」, 『한겨레』, 2022. 10. 11.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80쪽 관련.
 - 김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22. 8. 9.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40쪽 관련.
- [다] : 박상돈, 「수출 비중 중국↓·미국↑ …… “中 코로나 봉쇄·무역전쟁 등 영향”」, 『연합뉴스』, 2022. 7. 25.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63쪽 관련.
 - 김토일, 「미·중 무역전쟁 큰 영향 받는 10개국」, 『연합뉴스』, 2018. 7. 6.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63쪽 관련.
 - 김민상, 「‘인플레이션’ 전기차 보조금, 미·독·일·스웨덴 21종만 받는다」, 『중앙일보』, 2022. 8. 25.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143쪽 관련.
 - 원호연, 「美보조금 전기차 15종뿐 …… 현대차 추가 비용만 ‘수천억’ 쏟을 판」, 『헤럴드경제』, 2022. 8. 18.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56쪽 관련.
 - 유창욱, 「현대차·기아 美 판매량 ‘뚝’ …… IRA 여파 현실화?」, 『서울경제』, 2022. 10. 5.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56쪽 관련.
 - 한국광해광업공단(2017~2021), 각 연도별(2017~2021) 『광물종합지수』.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66쪽 관련.
 - 우영탁, 「어렵게 확보한 광산 매각 급급 …… 文정부, 해외자산 11개나 팔아」, 『서울경제』, 2022. 3. 24.
 - 박철웅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미래엔, 179쪽 관련.
 - 양철민, 「9년 적폐몰이에 …… 해외자원개발 535→401건 ‘추락」, 『서울경제』, 2022. 9. 4.
 - 황병삼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금성출판사, 179쪽 관련.
 - 신수민·황건강, 「[불붙은 신자원민족주의] 지난 10년간 멈춘 해외자원개발, 민간업체가 명맥 이어」, 『중앙선데이』, 2022. 3. 26.
 - 박철웅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미래엔, 179쪽 관련.
- [라]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 김동욱, 「잡스의 아이폰, 세계인의 플랫폼으로 …… 애플, ‘몸값 3조달러’ 신화를 쏘다」, 『한국일보』, 2022. 1. 4.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이익주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 64쪽.
 - 김왕근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205쪽.
 - 최예슬, 「日 “양보다 質” …… 中에 맞서 아프리카 시장 공략 대규모 투자 약속 등 안간힘 …… 中·일 신경전 가열」, 『국민일보』, 2016. 8. 29.
 - 황병삼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금성출판사, 179쪽 관련.
 - 최수문, 「백신·현금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중국화’ 가속 …… 직접투자도 美 제쳐」, 『서울경제』, 2021. 11. 29.
 - 황병삼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금성출판사, 179쪽 관련.
 - 박수찬, 「에너지 안보, 군사·자원 거점 …… 32년째 아프리카 가는 중국 외교장관」, 『조선일

보』, 2022. 1. 3.

- 황병삼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금성출판사, 179쪽 관련.
- 김왕근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204~205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48쪽 관련.
- 박철웅 외(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미래엔, 179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중국의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 주도로 인해 미국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나]의 현상을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에서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생산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미국이 최근 IRA와 같은 법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5점)

[다]의 각 상황과 [라]의 각 자료를 하나씩 상호 연관 지어 [다]의 각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상황 1 :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2>에 제시된 광해군과 고종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처럼 향후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현명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7점을 부여함
- 상황 2 : 최근 발효된 IRA로 인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1>에 제시된 기업 혁신의 종류와 애플의 혁신 성장 사례처럼 국내 전기차 제조회사들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상황 3 : 최근 광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광물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3>에 제시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투자 활동처럼 우리나라도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자원개발 투자, 채굴권 확보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나]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1>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아 최근 발생하는 경제적 갈등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자료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념이나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황 2>는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가 IRA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 점유율 및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는 <자료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상황 3>은 최근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투자가 매우 저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부는 <자료 3>에 제시된 미국, 일본, 중국의 사례처럼 아프리카와 같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국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채굴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ote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대]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오랜 기간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세상이 지옥과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판사 역시 인간과 세계를 그와 같이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의 말과 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후 대학 때 은사이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세상은 원래 탁한 연못과 같은 것이고 탁한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탁한 것만 고이면 썩게 되므로 그 속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웅달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제자인 내가 그런 작은 웅달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내 머릿속에 20여 년간 쌓인 탁한 말과 글을 정화해 줄 웅달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법서가 아닌 수필, 소설, 시집을 손에서 떼지 않으려고 애를 써 왔다.

내 머리, 마음속에서 증오와 비난, 탐욕으로 물든 말과 글을 비워 내고 아름다움, 감동과 진실의 말과 글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채울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공감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고, 약간의 운이 더해진다면 그 속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발 자신의 말을 두 시간만 들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 관계상 내가 속한 재판부는 3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과연 두 시간 동안 할 말이 있을지, 재판부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고,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두 시간 발언을 신청했다가 30분으로 시간이 제한된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는 원인이 재판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당사자의 말과 글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듣고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 더 쌓이지 않을까.

출처 : 민형식 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출제진 재구성)

[나]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혼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쉿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뺀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른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다] 어른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긴요한 것은 물어보는 법이 없다.

“목소리는 어떠니?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수집하니?”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는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라고 묻는다. 그제야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래야 “아, 참 좋은 집이구나!”하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기를, “어린 왕자가 멋지고, 웃음기가 있고,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야. 어떤 이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역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지.”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중략)……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른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하니까.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숫자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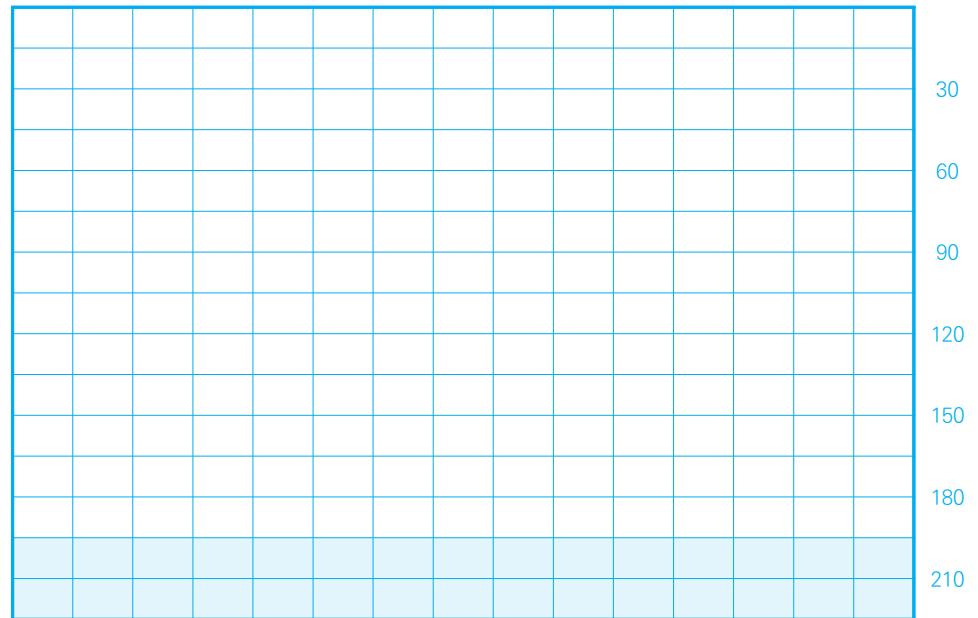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진정성이 훨씬 더 느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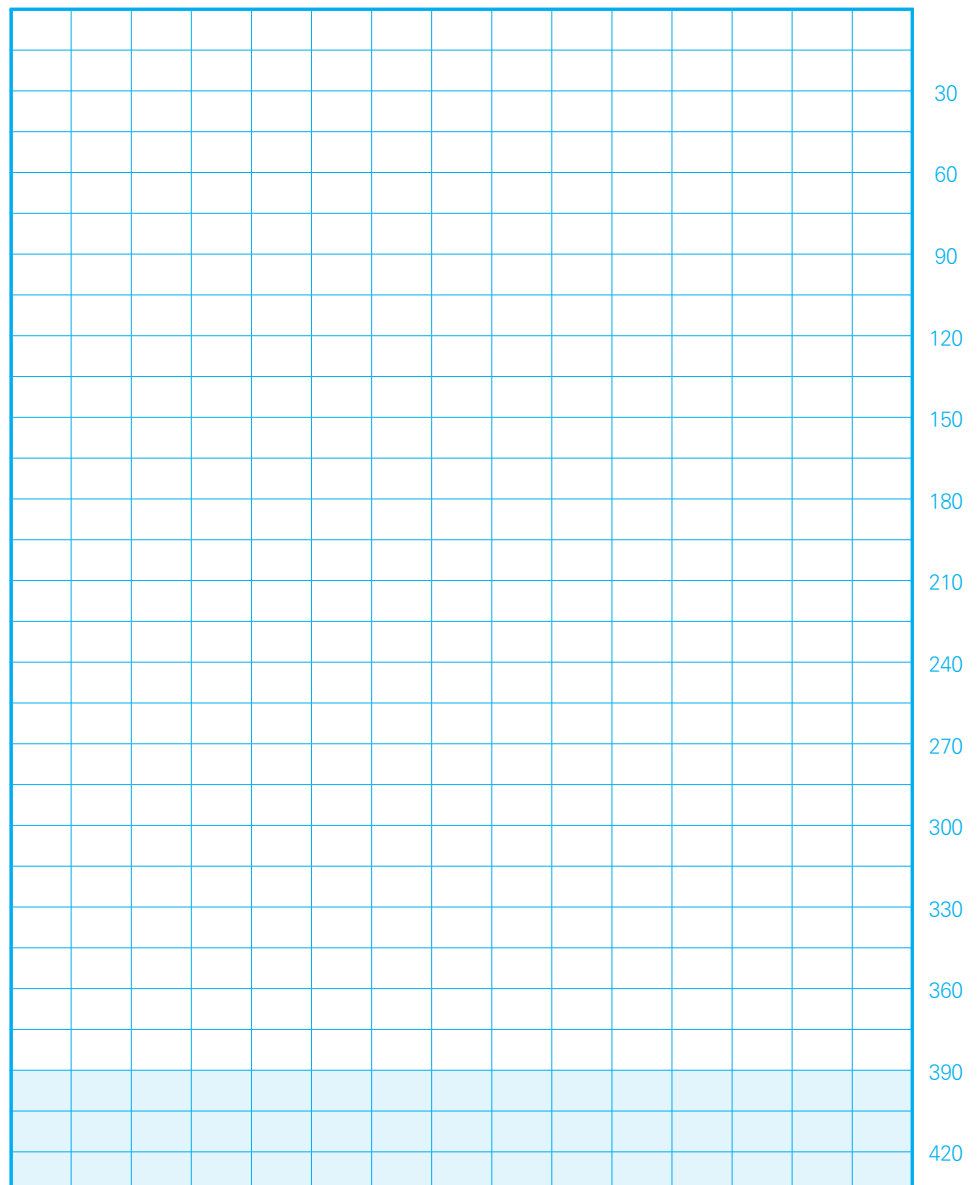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추억을 꺼낼라치면 깊은 슬픔에 잠긴다. 친구가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어언 여섯 해가 지났다. 여기서 그를 묘사해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으면 나 역시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출처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200자 내외)
(10점)



(400자 내외)
(20점)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4)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4)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 더욱 공감하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더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 부분에서 언어의 가치와 문화를 성찰하기 위해 활용한 이영창의 「나와 우리말과 글」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북으로 상징되는 성규 할아버지의 삶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부분에서 세대 간 화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 활용한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와 어른의 관심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부분에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제시문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민형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244~246쪽.
- [나] : 한철우 외(2019),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308~309쪽.
- [다] : 생텍쥐페리 저, 유지훈 역(2022), 『어린 왕자』, 투나미스, 30~33쪽.
- 박안수 외(2018),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19쪽 관련.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감’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공감’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 더욱 공감하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더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글이다. 재판에서 분쟁하는 당사자들의 말과 글을 오랜 기간 듣고 읽는 판사는 그 머리와 마음속이 탁한 말과 글로 채워진다. 만약 판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증오와 비난, 탐욕으로 물든 말과 글을 비워 내고, 그 대신 아름다움, 감동과 진실의 말과 글을 채운다면,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서 공감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 속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듣고 읽어 더욱 공감하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오고 법원의 신뢰도 더 쌓인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북으로 상징되는 성규 할아버지의 삶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는 글이다. 북을 연주하는 광대의 삶에 철저히 가족을 버린 성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 이에 반해 성규는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자신에게까지 연결시키려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갈등은 아버지의 몫이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성규는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한다. 가족을 버린 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예술인으로서 할아버지가 가진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성규와 아버지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와 어른의 관심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여 친구나 집을 숫자로 판단한다. 이에 반해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이며, 그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어른은 어린이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성은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런 어른이 되기보다는 친구를 추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감’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감이다.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 더욱 공감하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판사의 머리와 마음속에 감동과 진실의 말과 글을 채운다면, 재판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서 공감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이를 통해 더 좋은 결론이 나오고 법원의 신뢰도 더 쌓일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북으로 상징되는 성규 할아버지의 삶에 공감하는 성규와 공감하지 못하는 성규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보여 준다. 북을 연주하느라 가족을 버린 할아버지의 삶에 아버지는 공감하지 못하여 할아버지와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성규는 예술인으로서의 할아버지 생애에 공감하여,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성규와 아버지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

[다]는 어린이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의식을 비판하여, 현실적인 이익과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수치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진정성 없다고 비판한 글이다. 진정성은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런 어른이 되기보다는 친구를 추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Note

문제 2 [가]와 [나]를 활용하여 [대]를 설명하고,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라]에 대한 평가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스토아학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한 삶은 이성을 따르는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연에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하나의 전체이고, 신적인 이성(理性, logos)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한다. 그래서 신, 우주, 자연, 인간과 같은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성의 법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 세계 안의 모든 일은 이성의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온다. 그 운명은 신적인 것이자 이성적인 것이며,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신적인 이성의 법칙,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중략)……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은 이미 이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쾌락, 아름다움, 부, 명예나 이와 반대되는 고통, 추함, 가난, 나쁜 평판 등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무관한 것이므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중략)……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행복은 오직 덕 있는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지혜,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이 유일한 선이요, 행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이나 덕, 행복과 무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동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념이 이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자연의 법칙(자연법) : 인간 본성에 기초하여 우주·자연이나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정의(正義)의 법을 말한다. 실정법이나 역사적 제도를 비판하는 원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하나의 이성 법칙 아래 있으며 하나의 이성적 체제와 법률에 귀속된다. 이성은 신과 우주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가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애를 넘어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나아가 인류 전체를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자연법이 인간의 윤리적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세계, 모든 국가의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또 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하면 지식과 도덕도 새롭게 정의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듀이는 실용주의를 사회적·정치적·도덕적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지식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사상을 도구주의라고 불렀다. 도구주의 입장에서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써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듀이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변하는 고정적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존중하고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인권을 지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니 강제로라도 개입해야 옳을까? 주권 보장과 개입의 문제는 해묵은 딜레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의 개입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의 핵심, 곧 주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거부감이 크다.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거부감이 큰 것은 당연하다. 제2차 세계대전 뒤 평화와 안보를 위해 설립된 유엔도 주권을 강조한다.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 사법권에 포함되는 문제에 유엔이 개입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유린, 기아, 내전 등으로 개입이 거론되는 상당수 국가는 정권 그 자체가 원인이다. 이때문에 인권을 신성불가침한 주권에서 분리하고, 주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이 채택되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청소, 비인도적 범죄를 해당 국가가 명백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가 보호할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권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08. 7. 2.

유엔 평화유지군은 냉전이 끝나면서 유엔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중동 분쟁을 감시하는 임시 군사감시단으로 시작된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서 양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는 정전과 철군 감시 등 제한된 기능만 맡았다.

1990년대 냉전이 사라지자 평화유지활동에 붓물이 터졌다.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과 내전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대량 학살과 인종청소 등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엔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활동 분야도 군사 부문을 넘어 인도주의 구호 활동, 경제 개발, 정치·사법 영역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유엔의 모든 활동은 평화유지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캄보디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 엘살바도르, 동티모르 등은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과를 거둔 나라들이다. 동티모르에서는 독립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모잠비크에서는 9만 명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라이베리아에서는 내전과 군사독재 이후 자유 선거를 치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출처 : 『한겨레』, 2007. 1. 2.

[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사회 혼란을 빌미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고치고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이다. 박정희 정부는 아홉 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다. 특히 긴급조치 제9호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연인원 800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지식인이 구속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공업화와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하고자 경공업으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초 산업의 개발과 철강·화학·기계 공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함에 따라 인력 및 상품의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같은 기간 수출이 늘면서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자력으로 성장할 산업 구조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박정희 정부는 철강·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 공업을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 경공업·가공 무역 제품에서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바뀌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지만, 한국은 중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 결과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공업 생산의 55%를 넘어섰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 석유파동 : 1973~1974년, 1978~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사건.

* 보릿고개 : 식량이 떨어져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생활이 몹시 힘든 기간.

출처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출제진 재구성)

(30점)

[illegibl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하고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8) 세계화와 평화’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4) 대한민국의 발전’ 영역의 성취기준 [10한사04-04]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및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류지한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116~117쪽.
황인표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121쪽.
- [나]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56~157쪽.
- [다] : 김순배, 「‘주권보장이냐 인도적 개입이냐’ 국제 사회 고심」, 『한겨레』, 2008. 7. 2.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52~257쪽 관련.
박민희, 「대량 학살 인종청소 …… 지구를 구하라」, 『한겨레』, 2007. 1. 2.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52~257쪽 관련.
- [라] : 신주백 외(2020),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274~277쪽, 283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는 이성과 자연 법칙을 강조한 스토아학파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에 의해 연 결된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하나의 전체이다. 따라서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외적인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의 행복과 무관한 것이므로, 정념에 의해 그것들에 마음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이성은 우주와 모든 인간의 본성이므로, 이성인으로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 형제애로써 사랑하여야 한다.

[나]는 실천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적·과학적 방법으로 유용한 지식을 탐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 문제의 교정을 위해 지성에 의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법론의 실천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

[다]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기술한 신문 기사 내용이다. 본래 국제법 체계에서는 한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량 학살과 인종청소 등 반인권적 비극을 겪으면서, 국제 사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 기구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였다.

[가]의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다]에서 기술된 세계 곳곳의 대량 학살 등 인권 침해 상황은 자연법과 이성이라는 인간 본성에 반하므로, 평등과 형제애로 연결된 인간들이 연대하여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나]에서 제시된 듀이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시 개별 국가의 주권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전환한 것이므로 정당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가]의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인간의 평등과 형제애 등을 근거로 [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0~7점을 부여함
- [나]의 듀이의 실용주의에 나타난 지식의 실천성과 유용성, 변경 가능성을 [다]에서 국제법상 주권과 인도적 개입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5점)

[라]는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 절차와 인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획득·유지하는 과정과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하여 경제 발전과 풍요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가]의 관점에서 [라]는 비판적으로 평가된다. 이성에 기초하여 선이나 덕을 추구하라는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경제적 풍요와 지배 권력의 영속을 위해 무력으로 인권의 가치를 희생하였다는 점은 자연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반면 [나]에 제시된 듀이의 실용주의 관점에 의하면 빈곤의 극복과 경제적 풍요는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천과 유용성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용주의도 지성적 방식의 문제 해결 조건인 민주주의를 강조하므로 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부분은 비판된다.

◆ 채점 기준

- [가]의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덕의 추구를 근거로 [라]의 인권 침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논술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듀이의 실용주의가 주장한 지식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근거로 [라]의 경제 발전 목표를 위하여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논술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듀이의 실용주의에 의하더라도 지성적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여야 하므로, [라]의 민주주의 훼손을 통한 목표 달성이 비판받을 수 있음을 논술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의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성과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여야 한다. [나]에서 제시된 듀이의 실용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된 진리나 지식에 갇히지 않고 실천적이며 유용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에 기술된 세계 곳곳의 대량 학살 등 인권 침해는 자연법과 이성이라는 인간 본성에 반하므로, [가]의 평등과 형제애로 서로 연결된 인간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시 개별 국가의 주권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전환·개선한 것이므로 [나]의 듀이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라]에서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 [가]에 의하면 경제적 풍요가 이성에 의한 덕과 무관하고, 지배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인권을 희생시켰다는 점은 자연법 질서에 반하므로 비판된다. 반면 [나]의 듀이의 실용주의 관점에 의하면 빈곤의 극복과 경제적 풍요는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천과 유용성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듀이의 실용주의는 지성적 방식의 문제 해결 조건인 민주주의를 강조하므로 [라]의 민주주의 훼손은 비판된다.

Note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누구나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꿀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 갈등에서부터, 크게는 국제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갈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가 제한되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갈등의 양상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 갈등이 빈발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었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집단적으로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 속에서 양극화와 경쟁의 심화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 당면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으므로 다양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을 통해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 대화와 타협, 협상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며,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시민 의식의 발달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나] ◆ 세대 구분 및 연대별 주요 사건

구분	전통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출생 연도	1940~1954년	1955~1964년	1965~1979년	1980~2000년	2001~2010년

세대	시기	삶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전통 세대	~1959년	- 1945년 해방, 미 군정 실시 -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 1962~1969년 경제개발계획
베이비붐 세대	1970년대	- 1970년 새마을운동 - 1972년 유신 체제
	1980년대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 출범 -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1/1), 베를린 장벽 붕괴
X세대	1990년대	- 1991년 소련 붕괴(냉전 종식, 12/25) - 1994년 인터넷 도입(6/2), 김일성 사망(7/8), 성수대교 붕괴(10/21)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6/9), 1997년 외환 위기, 1999년 제1연평해전(6/16)
	2000년~	- 2002년 한일 월드컵, 제2연평해전(6/29), 2007년 아이폰 출시(6/29) - 2008년 금융 위기(저성장 국면 시작), 2009년 스마트폰 도입(11/28) - 2010년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4/16)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밀레니얼 세대 / Z세대		

출처 : 허두영, 『세대 분석 사전』

◆ 과학기술 발전

세대	시기	성과	특징
전통 세대	~1959년	공병우 타자기 개발	기계화 (1차 산업혁명)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배추 품종 개발, 나일론 생산기술, 화학비료 생산 기술 개발	대량생산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국산차 포니, 통일벼 개발	
X세대	1980년대	전자식 전화교환기 TDX-1 상용화, 한탄바이러스 백신, DRAM 메모리 반도체 개발	지식정보 (3차 산업혁명)
밀레니얼 세대 / Z세대	1990년대	우리별 인공위성 제작,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 한국형 표준 원전 설계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
	2000년~	글로벌 신약 팩티브, 인간형 휴머노이드(휴보),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개발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출처 : 허두영, 『세대 분석 사전』(출제진 재구성)

기존의 사회가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사회였다면, 정보 사회에서는 서비스업, 첨단 산업 등의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 가치의 원천 역시 산업 사회의 자본에서 지식 및 정보로 이동하게 되며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직업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정보 사회의 변동 속도가 빠른 만큼 외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료제 조직에서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생산 방식 역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한편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일방향적 매체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적 매체가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재택근무처럼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한다.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 연령에 따른 디지털 역량의 차이

(단위: 점, %)

구분		점수(100점 환산)		고령층 수준*(b/a*100)
		전체(a)	고령층(b)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	기기 이용	64	43	67
	서비스 이용	65	45	69
디지털 정보 이해도	비판적 정보 이해	60	48	80
	미디어 이해	67	58	87

* 고령층 수준 : 전체 시민의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전체 시민 대비 고령층(65세 이상)의 역량 수준.

출처 : 『경향신문』, 2022. 5. 16.

◆ 세대원수별 세대수

(단위: 천 세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세대	6,737	6,878	7,050	7,243	7,447	7,725	8,086	8,489	9,063	9,462
2인세대	4,022	4,158	4,298	4,434	4,569	4,735	4,929	5,129	5,404	5,614
3인세대	3,749	3,795	3,840	3,886	3,927	3,959	3,984	4,006	4,012	3,999
4인세대 이상	5,704	5,625	5,537	5,448	5,351	5,213	5,044	4,858	4,614	4,399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출제진 재구성)

[다] ◆ 세대별 주관적 정치 성향 인식

(단위: %)

정치 성향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전체평균
진보*	16	15	25	34	33	23	25
중도*	35	45	43	40	38	42	41
보수*	49	40	32	26	30	35	34

* 진보 : 전통적인 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정치적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

* 중도 :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의 성향.

* 보수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며 지키려고 하는 성향.

출처 : 배진석, 『EAI 대선 패널 조사』

◆ 연령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3.5	9.4	10.5	11.0	15.4	34.4
하는 것이 좋다	26.7	29.2	30.0	36.2	40.4	38.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6.6	48.2	50.3	46.6	39.2	22.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6	5.3	3.9	3.2	1.6	2.6
하지 말아야 한다	1.0	1.2	1.4	0.6	0.5	0.2
잘 모르겠다	8.6	6.7	3.8	2.5	2.9	2.3

출처 : 『충남일보』, 2022. 9. 28.

◆ 세대 간 소통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매우 잘	소계
전체		10	46	38	6	44
성별	남성	12	52	33	3	37
	여성	10	50	34	4	39
연령별	30대 미만	15	52	30	2	33
	30대	11	52	32	4	36
	40대	9	48	38	5	43
	50대	10	52	33	4	37
	60대	9	52	34	5	39

출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라] 40대 초반 직장맘 최승희(가명, 이하 모두 가명) 씨는 60대 초반 엄마와 이틀에 한 번꼴로 모녀 전쟁을 한다. 레퍼토리는 엇비슷하다. 최 씨는 “이젠 제발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호소하고,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엄마 말만 들으면 돼.”라고 응수한다. 바쁜 딸을 대신해 엄마는 모든 집안일과 초등학생 두 손주의 숙제는 물론 방과후 학원까지 챙긴다. 사사건건 엄마의 간섭을 받는 최 씨의 스트레스는 몸의 징후로도 나타났다. 만성두통과 소화불량을 안고 산다.

중2 김민준 군은 하교 전 아빠의 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어쩌다 아빠가 일찍 퇴근한 날이면 아빠를 피해 집이 아닌 독서실로 하교한다. 이런 날은 엄마가 독서실로 아들의 저녁 도시락을 배달한다. 아빠와 아들이 부딪치지 않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둘은 한 공간에만 있으면 어김없이 싸운다. 김 군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틀이 강한 아빠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패 안 해.”라며 호통친다. 김 군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80대 후반 시아버지와 50대 중반 며느리 한지영 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 유교적 가풍을 중시하고 법도를 따지는 시아버지는 한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들지 않는다. 밥상에서 자신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며칠 나갔다 오면 큰절로 맞이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건만 며느리는 따르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고 사나요?”라며 따박따박 따지던 며느리는 침묵을 택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지는 오래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한 씨의 남편인 아들이 전달자 역할을 한다.

출처 : 『주간조선』, 2018. 4. 6.

지난 12월 18대 대선을 계기로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됐다. 세대 간 지지 후보가 크게 달라지면서, 세대 간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선 갈등으로 부각된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공공 교통 노인 무료 승차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은 공공연한 현실이 됐다.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사회윤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세대 간 반목과 갈등은 눈앞에 보이는 사회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출처 : 『나라경제』, 2013. 2.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는 더 부족해질 게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노사 간,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고.” 많은 젊은이가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의 독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는 드라마 「미생(未生)」의 대사에 더 공감을 나타낸다. 젊은이들에겐 할아버지 세대의 노고에 대한 감상보다는 여전히 풍파 속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미생이라도 취업하고 싶고, 완생(完生)을 꿈꾸기보다 직장에서 잘려 ‘사석(死石)’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15. 1. 5.

다음은 김 부장(50세)과 신입 사원인 박 사원(25세)이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다.

김 부장 : 우리 박 사원은 주말에 뭘 했나?

박 사원 : 집에서 쉬었습니다.

김 부장 : 날씨 좋던데……. 집에만 있었어? 남자 친구랑 싸웠나?

박 사원 : 남자 친구 없는데요…….

김 부장 : 뭐야, 나이가 몇인데 남자 친구가 없어?

박 사원 : 네?

김 부장 : 뭐 문제 있는거 아냐?

박 사원 : 네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이다. 인간 관계에서 거리를 지키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서로의 생활이나 업무

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일과 사생활을 엄연히 분리하고 싶은 생각에서다. 선배 직장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한다고 느끼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박 사원이 화를 낸 이유는 김 부장이 자신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기 때문이다.

소통이 어려운 건 사실 선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원 팀’ 또는 ‘가족같은’ 분위기에 적응했던 Y세대들에게 Z세대 신입 사원의 등장은 위협적이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주저 없이 퇴근하는 Z세대의 모습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김 부장이 원했던 것은 박 사원과 친해질 수 있는 대화였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싶었던 김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

출처 : 『독서신문』, 2021. 10. 29.

(40점)

(600자 내외)

(40점)

A blank graph grid with a vertical axis on the right. The axis is labeled with values from 30 to 660 in increments of 30. The grid is 15 units wide and 20 units high. The bottom 4 units (from 600 to 660) are shaded light blue.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4) 대한민국의 발전’ 영역의 성취기준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5)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에 당면한 사회 갈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시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와 세대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 그리고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세대 간 정치 성향의 차이, 세대 간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의 부족을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라]는 가정 내에서의 세대 갈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세대 갈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대 갈등, 직장 내에서의 세대 갈등 사례를 든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85~187쪽.
- [나] : 허두영(2020), 『세대 분석 사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3쪽.
 - 최준채 외(2020),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38~313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72~73쪽 관련.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85쪽.

- 김보미, 「연령별 디지털 격차, ‘정보 이해’·‘보안’ 분야에서 가장 커 …… 서울 시민 첫 역량 조사」, 『경향신문』, 2022. 5. 16.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80쪽 관련.
행정안전부(2013~2022), 각 연도별(2012~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66쪽 관련.
- [다] : 배진석(2022), 『[EAI 대선 패널 조사] ⑥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 ‘86세대’인가 ‘60년대생’인가?』, 동아시아연구원, 5쪽.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84쪽 관련.
이진희, 「충청권 2030세대 중 ‘결혼 해야한다’는 생각은 10명 중 4명」, 『충남일보』, 2022. 9.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7),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0~192쪽 관련.
- [라] : 김민희, 「가족은 ‘전쟁 중’ 가족 갈등,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 『주간조선』, 2018. 4. 6.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84쪽 관련.
신광영, 「세대 갈등, 대선 이후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급부상」, 『나라경제』, 2013. 2.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84쪽 관련.
정철근,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가 공생하려면」, 『중앙일보』, 2015. 1. 5.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84쪽 관련.
안지섭, 「깊어 가는 직장 내 세대 갈등, 우아한형제들·현대는 이렇게 해결했다」, 『독서신문』, 2021. 10. 29.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84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나], [다]의 현상만을 각각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가]에 나타난 사회 갈등의 원인 측면에서 [나], [다]의 현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11~20점

○ 문항 해설 2 (20점)

[가]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가]에 나타난 사회 갈등 해결 방안을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11~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나]는 시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구의 변화를, [다]는 이에 따른 세대 간의 차이와 세대 간 소통의 부족을 보여 준다. 즉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각 세대는 생애주기에서 서로 다른 사건을 겪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개인화와 탈관료제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세대 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정치 성향, 결혼관 등에서 세대별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는 세대 간 소통의 부족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라]에서처럼 세대 갈등이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정치적으로는 세대 간 정치 성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 경제적으로는 기회 혹은 자원의 분배 차이에 따른 갈등, 직장 내에서는 세대 간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등이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은 상대방에 대한 역지사지의 자세로 자신과 다른 견해나 입장을 ‘틀림’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음 사회 역시 세대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수렴하여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Note

PART IV

자연계열 논술고사

-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가이드 답안
- 2023학년도 논술고사 및 가이드 답안



📍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 무엇을 평가하나요?

- 고교 수학 교과와 기본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정확한 답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과정 전반을 평가합니다.
- 풀이과정의 정도에 따라 수험생에게 부분 점수가 부여됩니다.

■ 어떻게 출제하나요?

- 고교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적합하고 대입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합니다.
- 단순 공식이나 지식의 암기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소문항은 제시문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두 개의 문제로 출제되되 문제별 소문항을 2~3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시문	난이도	답안지 양식	시간
문제1	서술자료	하 ~ 상	답안 규격이 정해진 자유 양식	120분
문제2		하 ~ 상		

■ 평가기준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55점)

<제시문>

(가) 수렴하는 두 수열 $\{a_n\}, \{b_n\}$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a_n = \alpha, \lim_{n \rightarrow \infty} b_n = \beta$ 일 때, (i)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 \leq b_n$ 이면 $\alpha \leq \beta$ (ii) 수열 $\{c_n\}$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 \leq c_n \leq b_n$ 이고 $\alpha = \beta$ 이면 수열 $\{c_n\}$ 은 수렴하고 $\lim_{n \rightarrow \infty} c_n = \alpha$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 = 0$ 이고, $x = a$의 좌우에서 (i)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는 $x = a$에서 극대 (ii)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는 $x = a$에서 극소
(다)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할 때, $\int_a^b f(x)dx = [F(x)]_a^b = F(b) - F(a)$

[문제 1] 다음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15점)

$$\lim_{n \rightarrow \infty} \frac{1}{n^3} \sum_{k=1}^n \sqrt{k(k+1)(k^2+3)}$$

-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문제 2]와 [문제 3]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f(x)$ 는 $x = \alpha, x = \beta$ ($0 < \alpha < \beta$)에서 극값을 갖는다.
- (2) $f(0) = f(\beta)$
- (3) $\int_0^\beta f(x)dx - \beta f(\beta) = 108$

[문제 2] 함수 $f(x)$ 의 두 극값의 차를 구하십시오. (20점)

- [문제 3]**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 = f(x)$ 위의 두 점 $P(t, f(t)), Q(3t, f(3t))$ 를 1: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R라 하자. 점 R가 나타내는 곡선의 방정식을 $y = g(x)$ 라 하면, 함수 $g(x)$ 는 $x = \gamma$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int_0^{\frac{2}{3}\gamma} f(x)dx = 50 \text{ 일 때, 함수 } f(x) \text{의 극댓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출제의도

[문제 1] 수열의 성질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극값을 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3] 내분점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출처

- 김원경 외(2020), 수학, 102-109쪽.
- 김원경 외(2020), 미적분, 16-19쪽.
- 류희찬 외(2022), 미적분, 18-22쪽.
- 황선옥 외(2022), 수학 II, 82-88쪽, 122-128쪽.

[문제 1 평가기준]

- $k^2 < \sqrt{k(k+1)(k^2+3)} < k^2 + 4k + 4$ 를 제시 : 8점
- $\frac{(n+1)(2n+1)}{6n^2} < \frac{1}{n^3} \sum_{k=1}^n \sqrt{k(k+1)(k^2+3)} < \frac{(n+1)(2n+1)}{6n^2} + \frac{2(n+1)}{n^2} + \frac{4}{n^2}$ 를 제시 : 4점
- 정답을 제시 : 3점

[문제 2 평가기준]

- $\beta = 6$ 임을 제시 : 10점
- $f(x) = x(x-6)^2 + f(6)$ 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문제 3 평가기준]

- $g(x) = \frac{1}{4}f(2x) + \frac{3}{4}f\left(\frac{2}{3}x\right)$ 를 제시 : 10점
- $\gamma = 3$ 임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 예시 답안

[문제 1] 자연수 k 에 대하여

$$k^4 < k(k+1)(k^2+3) < k(k+1)(k^2+4k+4) < (k^2+4k+4)^2 \quad \dots\dots\dots(A)$$

이므로 $k^2 < \sqrt{k(k+1)(k^2+3)} < k^2+4k+4$ 이고

$$\frac{1}{n^3} \sum_{k=1}^n k^2 < \frac{1}{n^3} \sum_{k=1}^n \sqrt{k(k+1)(k^2+3)} < \frac{1}{n^3} \sum_{k=1}^n (k^2+4k+4)$$

따라서

$$\frac{(n+1)(2n+1)}{6n^2} < \frac{1}{n^3} \sum_{k=1}^n \sqrt{k(k+1)(k^2+3)} < \frac{(n+1)(2n+1)}{6n^2} + \frac{2(n+1)}{n^2} + \frac{4}{n^2}$$

이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n+1)(2n+1)}{6n^2} = \lim_{n \rightarrow \infty} \left(\frac{(n+1)(2n+1)}{6n^2} + \frac{2(n+1)}{n^2} + \frac{4}{n^2} \right) = \frac{1}{3}$$

이고 제시문 (가)에 의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frac{1}{n^3} \sum_{k=1}^n \sqrt{k(k+1)(k^2+3)} = \frac{1}{3}$$

(참고) 부등식 (A)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바꾸어 풀이가 가능하다.

$$k^4 < k(k+1)(k^2+3) < (k+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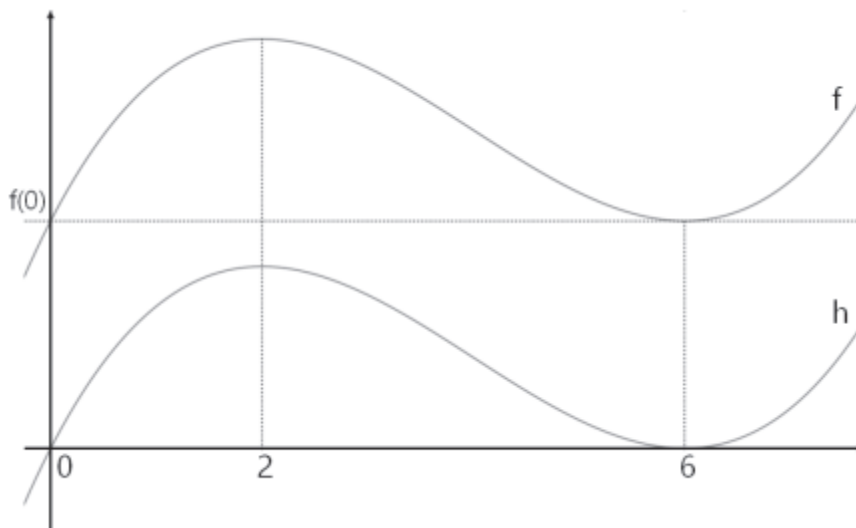
[문제 2] 함수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고 조건 (1)에 의하여 $f(\alpha)$ 는 극댓값, $f(\beta)$ 는 극솟값이며 $f(\alpha) > f(\beta)$ 이다. 함수 $h(x) = f(x) - f(\beta)$ 라 하면 $h'(x) = f'(x)$ 이고 $h(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다. 조건 (1)과 (2)에 의하여

$$h(x) = x(x-\beta)^2$$

조건 (3)에 의하여

$$108 = \int_0^\beta f(x)dx - \beta f(\beta) = \int_0^\beta h(x)dx = \int_0^\beta x(x-\beta)^2dx = \frac{1}{12}\beta^4$$

이므로 $\beta = 6$ 이다. 따라서 $h(x) = x(x-6)^2$



$f(2) > f(6)$ 이므로 두 극값의 차는 32 이다.

[문제 3]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 는

$$f(x) = x(x-6)^2 + f(6)$$

이고

$$f'(x) = 3x^2 - 24x + 36 \quad \dots\dots\dots(B)$$

점 R 의 좌표를 (x, y) 라 하자. 두 점 $P(t, f(t))$, $Q(3t, f(3t))$ 를 1:3 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left(\frac{3t+3t}{1+3}, \frac{f(3t)+3f(t)}{1+3} \right) = \left(\frac{3t}{2}, \frac{f(3t)+3f(t)}{4} \right)$$

$x = \frac{3t}{2}$, $y = \frac{f(3t)+3f(t)}{4}$ 라 할 때 구하는 곡선의 방정식은

$$y = \frac{1}{4}f(2x) + \frac{3}{4}f\left(\frac{2}{3}x\right)$$

따라서 $g(x) = \frac{1}{4}f(2x) + \frac{3}{4}f\left(\frac{2}{3}x\right)$ 이다. 한편

$$g'(x) = \frac{1}{2}f'(2x) + \frac{1}{2}f'\left(\frac{2}{3}x\right)$$

이고 $g'(x) = 0$ 에서 $f'(2x) + f'\left(\frac{2}{3}x\right) = 0$ 이므로 식 (B) 로 부터

$$(5x-9)(x-3) = 0$$

$g(x)$ 는 $x = 3$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50 = \int_0^2 f(x)dx = \left[\frac{1}{4}x^4 - 4x^3 + 18x^2 + f(6)x \right]_0^2 = 44 + 2f(6)$$

에서 $f(6) = 3$ 이고 극댓값은 $f(2) = 35$ 이다.

 **Not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미분가능한 두 함수 $f(x), g(x)$ 에 대하여 $\{f(x)g(x)\}' = f'(x)g(x) + f(x)g'(x)$
(나) 함수 $f(t)$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frac{d}{dx} \int_a^x f(t)dt = f(x) \quad (\text{단, } a < x < b)$
(다)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f'(a) = 0$ 이고, $x = a$ 의 좌우에서 (i) $f'(x)$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대 (ii) $f'(x)$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소

[문제 1] 함수 $f(x) = -(x-1)^2 + 1$ 에 대하여, 열린구간 $(1, 2)$ 에서 정의된 함수

$$g(x) = \int_0^x |f(x) - f(t)| dt$$

라 하자. $g(x)$ 가 $x = a$ 에서 극값을 가질 때, a 의 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 2] 양의 실수 α 에 대하여 함수

$$h(x) = \alpha x^2 e^{-\frac{2x}{\alpha}}$$

라 하고, 실수 t 에 대하여 $k(t)$ 를 닫힌구간 $[h(t), h(t) + \alpha]$ 에서 $h(x)$ 의 최댓값이라 하자.
 함수 $k(t)$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α 의 최댓값을 구하십시오. (25점)

모든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k(t)$ 의 값이 일정하다.

(단, $\lim_{x \rightarrow -\infty} h(x) = \infty$ 이고 $\lim_{x \rightarrow \infty} h(x) = 0$)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출제의도

[문제 1] 정적분과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도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출처

- 권오남 외(2020), 수학 II, 88-95쪽, 130-136쪽.
- 이준열 외(2020), 수학 II, 86-89쪽, 121-126쪽.
- 황선욱 외(2022), 수학 II, 82-88쪽, 122-128쪽.

[문제 1 평가기준]

- $g(x) = \int_0^{2-x} \{f(x) - f(t)\} dt + \int_{2-x}^x \{f(t) - f(x)\} dt$ 임을 제시 : 7점
- $g'(x) = 2(x-1)(3x-4)$ 임을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3점

[문제 2 평가기준]

- $h(x)$ 의 극값을 모두 제시 : 5점
- $h(\alpha) \leq \alpha$ 를 제시 : 15점
- 정답을 제시 : 5점

예시 답안

[문제 1] $0 < t \leq 2-x$ 일 때, $f(x) \geq f(t)$ 이고 $2-x < t \leq x$ 일 때, $f(x) \leq f(t)$ 이므로

$$\begin{aligned} g(x) &= \int_0^{2-x} \{f(x) - f(t)\} dt + \int_{2-x}^x \{f(t) - f(x)\} dt \\ &= f(x) \int_0^{2-x} 1 dt - \int_0^{2-x} f(t) dt + \int_{2-x}^x f(t) dt - f(x) \int_{2-x}^x 1 dt \\ &= f(x)(2-x) - \int_0^{2-x} f(t) dt + \int_{2-x}^x f(t) dt - f(x)(2x-2) \end{aligned}$$

$g'(x) = 2(x-1)(3x-4)$ 이고 제시문 (다)에 의하여 $x = \frac{4}{3}$ 에서 극값을 갖는다. 따라서 $a = \frac{4}{3}$ 이다.

[문제 2] $h'(x) = 2x(\alpha - x)e^{-\frac{2x}{\alpha}}$ 이므로 $h(x)$ 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cdots$	0	$\cdots$	α	$\cdots$
$h'(x)$	-	0	+	0	-
$h(x)$	$\searrow$	0	$\nearrow$	$\alpha^3 e^{-2}$	$\searrow$

$h(x)$ 의 극솟값은 $h(0) = 0$ 이고 극댓값은 $h(\alpha) = \alpha^3 e^{-2}$ 이다.

(i) $h(t) > \alpha$ 인 양의 실수 t 가 존재하는 경우:

$\alpha \notin [h(t), h(t) + \alpha]$ 이고 닫힌구간 $[h(t), h(t) + \alpha]$ 에서 $h(x)$ 는 감소하므로 $k(t) = h(h(t))$ 이다.

$h(\alpha) > \alpha$ 이므로 곡선 $y = h(x)$ 와 직선 $y = \alpha$ 의 두 교점의 x 좌표를 t_1, t_2 ($0 < t_1 < t_2$)라 하면(그림 1), 열린구간 (t_1, t_2) 에서 $k(t) = h(h(t))$ 이고 $k(t)$ 는 이 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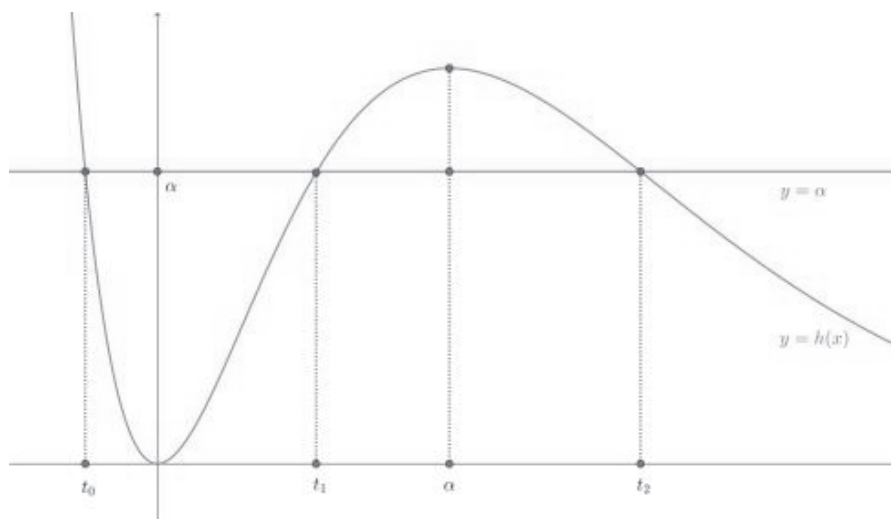


그림 1 : $h(\alpha) > \alpha$ 인 경우

(ii) 모든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0 \leq h(t) \leq \alpha$ 인 경우:

$\alpha \in [h(t), h(t) + \alpha]$ 이므로 $k(t)$ 는 항상 일정한 값 $h(\alpha)$ 를 갖는다(그림 2).

$h(\alpha)$ 는 극댓값이므로 $h(\alpha) = \alpha^3 e^{-2} \leq \alpha$ 인 모든 α 에 대하여 함수 $k(t)$ 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최댓값은 e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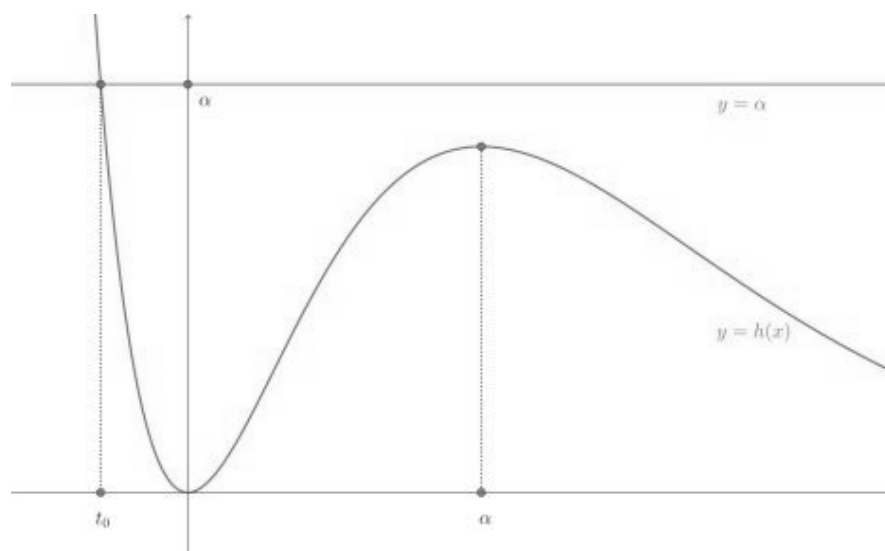


그림 2 : $h(\alpha) \leq \alpha$ 인 경우

 Note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가)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f'(a) = 0$ 이고, $x = a$ 의 좌우에서 •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는 $x = a$에서 극대 •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는 $x = a$에서 극소
(나) 등비급수 $\sum_{n=1}^{\infty} ar^{n-1} = a + ar + ar^2 + \dots + ar^{n-1} + \dots$ ($a \neq 0$)은 $ r < 1$ 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frac{a}{1-r}$
(다) 미분가능한 함수 $t = g(x)$ 의 도함수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g(a) = \alpha$, $g(b) = \beta$ 에 대하여 함수 $f(t)$ 가 α 와 β 를 양 끝으로 하는 닫힌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b f(g(x))g'(x)dx = \int_{\alpha}^{\beta} f(t)dt$
(라) 미분가능한 두 함수 $f(x)$, $g(x)$ 에 대하여 $\int f(x)g'(x)dx = f(x)g(x) - \int f'(x)g(x)dx$

[문제 1]과 [문제 2]에서 함수 $f(x)$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3)(f(x)+3)(2f(x)-x^3+a^2x)=0$ (단, a 는 상수이고 $a > 0$)

[문제 1] 방정식 $f(x) = 0$ 의 실근이 1개이고 함수 $f(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이 24일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제 2] 실수 k 에 대하여 직선 $y = a^2(x-k)$ 와 함수 $f(x)$ 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k)$ 라 하자. 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a) + f\left(-\frac{a}{2}\right) + f(2a)$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 (1) $\lim_{k \rightarrow -\infty} g(k) - \lim_{k \rightarrow \infty} g(k) = 2$
- (2) $g(-a) = 3$
- (3) $f(t) + f(-t) < 0$ 인 실수 t 가 열린구간 $(0, a)$ 에 존재한다.
- (4) $f(x)$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모든 점의 x 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은 -3

[문제 3]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 \frac{1}{4\pi} \int_{\pi^4}^{n^4\pi^4} \frac{\sin \sqrt[4]{x}}{\sqrt{x}} dx$$

일 때, 급수 $\sum_{n=1}^{\infty} \frac{2^{a_{2n}}}{2^{a_{2n-1}}}$ 의 합을 구하시오. (20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문제 1] 그래프를 활용하여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함수의 연속과 미분을 활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3]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급수의 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황선욱 외(2020), 수학, 미래엔, 75-78쪽.
- 황선욱 외(2020), 미적분, 미래엔, 110-117쪽.
- 류희찬 외(2022), 미적분, 천재교과서, 35-39쪽, 164-175쪽.

▣ 문항해설

[문제 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미분을 활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

[문제 2]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

[문제 3]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할 수 있고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

▣ 채점기준

[문제 1 평가기준]

- 함수 $f(x)$ 의 그래프 또는 식을 제시 : 8점
- 정답을 제시 : 7점

[문제 2 평가기준]

- 함수 $f(x)$ 의 그래프 또는 식을 제시 : 8점
- $a = \sqrt{7}$ 을 제시 : 7점
- 정답을 제시 : 5점

[문제 3 평가기준]

- $\int \frac{\sin \sqrt[4]{x}}{4\sqrt{x}} dx = \int t \sin t dt$ 를 제시 : 7점
- a_n 을 제시 : 8점
- 정답을 제시 : 5점

▣ 예시 답안

[문제 1] 조건

$$(f(x)-3)(f(x)+3)(2f(x)-x^3+a^2x)=0$$

에서 각각의 실수 x 에 대하여

$$f(x)=3 \text{ 또는 } f(x)=-3 \text{ 또는 } f(x)=\frac{1}{2}x(x-a)(x+a)$$

$f_0(x)=\frac{1}{2}x(x-a)(x+a)$ 라 하자. 함수 $f(x)$ 의 그래프가 x 축과 만나는 점이 1개이고 함수 $f(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이 양수이므로

$$1)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text{ 이고 } f_0(x) \text{의 극댓값이 } 3 \text{보다 크거나}$$

$$2)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text{ 이고 } f_0(x) \text{의 극댓값이 } 3 \text{보다 커야 한다.}$$

$f_0(x)$ 는 극댓값 $f_0\left(-\frac{a}{\sqrt{3}}\right)=\frac{\sqrt{3}}{9}a^3$ 을 갖고 위의 1)과 2)에 의하여 함수 $f(x)$ 의 최댓값은 $f_0(x)$ 의 극댓값인 $\frac{\sqrt{3}}{9}a^3$ 이다. 이때 함수 $f(x)$ 의 최솟값은 -3 이므로 $\frac{\sqrt{3}}{9}a^3+(-3)=24$ 이고, $a=3\sqrt{3}$

[문제 2] 함수 $f(x)$ 에 따른 $g(k)$ 의 값을 살펴보면,

$$1) \lim_{x \rightarrow -\infty} f(x) = -\infty, \lim_{x \rightarrow \infty} f(x) = \infty \text{ 일 때 : } \lim_{k \rightarrow -\infty} g(k) = \lim_{k \rightarrow \infty} g(k) = 1$$

$$2) \lim_{x \rightarrow -\infty} f(x) = -\infty, \lim_{x \rightarrow \infty} f(x) = \pm 3 \text{ 일 때 : } \lim_{k \rightarrow -\infty} g(k) = 0, \lim_{k \rightarrow \infty} g(k)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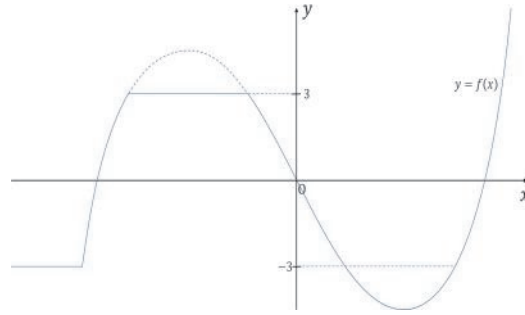
$$3) \lim_{x \rightarrow -\infty} f(x) = \pm 3, \lim_{x \rightarrow \infty} f(x) = \pm 3 \text{ 일 때 : } \lim_{k \rightarrow -\infty} g(k) = \lim_{k \rightarrow \infty} g(k) = 1$$

$$4) \lim_{x \rightarrow -\infty} f(x) = \pm 3, \lim_{x \rightarrow \infty} f(x) = \infty \text{ 일 때 : } \lim_{k \rightarrow -\infty} g(k) = 2, \lim_{k \rightarrow \infty} g(k)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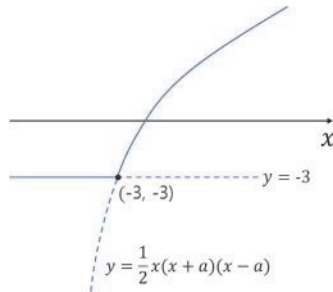
조건 (1)에 의해 가능한 경우는 위의 4) 뿐이고,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인 경우 $g(-a) = 2$,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인 경우 $g(-a) = 3$ 이므로 $\lim_{x \rightarrow -\infty} f(x) = -3$

위의 사실과 조건 (3)에 의해 함수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조건 (4)로부터 점 $(-3, -3)$ 은 직선 $y = -3$ 과 곡선 $y = \frac{1}{2}x(x-a)(x+a)$ 의 교점이다.



$-3 = \frac{1}{2}(-3)(-3-a)(-3+a)$ 로부터 $a = \sqrt{7}$. 따라서

$$f(x) = \begin{cases} -3 & (x < -3) \\ \frac{1}{2}x(x - \sqrt{7})(x + \sqrt{7}) & (-3 \leq x < -2) \\ 3 & (-2 \leq x < -1) \\ \frac{1}{2}x(x - \sqrt{7})(x + \sqrt{7}) & (x \geq -1) \end{cases}$$

이므로 $f(-2a) + f\left(-\frac{a}{2}\right) + f(2a) = 21\sqrt{7}$

[문제 3] $x = t^4$ 이라고 하면 $\sin \sqrt[4]{x} = \sin t$, $\sqrt{x} = t^2$, $dx = 4t^3 dt$.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int \frac{\sin \sqrt[4]{x}}{4\sqrt{x}} dx = \int t \sin t dt$$

한편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면

$$\int x \sin x dx = -x \cos x + \sin x + C \quad (C \text{는 적분상수})$$

이므로

$$a_n = \frac{1}{4\pi} \int_{\pi^4}^{n^4\pi^4} \frac{\sin \sqrt[4]{u}}{\sqrt{u}} du = \frac{1}{\pi} \int_{\pi}^{n\pi} x \sin x dx = \frac{1}{\pi} \left[-x \cos x + \sin x \right]_{\pi}^{n\pi} = -n(-1)^n - 1$$

따라서 $a_{2n-1} = 2n-2$ 이고 $a_{2n} = -2n-1$ 이므로

$$\sum_{n=1}^{\infty} \frac{2^{a_{2n}}}{2^{a_{2n-1}}} = \sum_{n=1}^{\infty} 2^{-4n+1} = \sum_{n=1}^{\infty} \frac{1}{8} \left(\frac{1}{16} \right)^{n-1} = \frac{\frac{1}{8}}{1 - \frac{1}{16}} = \frac{2}{15}$$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 $f'(x) > 0$이면 $f(x)$는 증가 • $f'(x) < 0$이면 $f(x)$는 감소
(나) 미분가능한 두 함수 $y = f(u)$, $u = g(x)$에 대하여 합성함수 $y = f(g(x))$의 도함수는 $y' = f'(g(x))g'(x)$
(다) 미분가능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int_a^b f(x)g'(x)dx = \left[f(x)g(x) \right]_a^b - \int_a^b f'(x)g(x)dx$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1) $f(x)$ 는 열린구간 $(-1, 0)$ 에서 증가하고 열린구간 $(0, 1)$ 에서 감소한다.
- (2) $f(-1) + f(1) = 0$
- (3) $-1 < x < 1$ 인 모든 x 에 대하여 $f''(x) < 0$
- (4) 닫힌구간 $[-1, 1]$ 에서 곡선 $y = f(x)$ 와 두 점 $(-1, f(-1))$, $(1, f(1))$ 을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3

[문제 1] 함수 $g(x)$ 를 $g(x) = \sin 2x$ 라 할 때, 자연수 n 에 대하여 열린구간 $(0, n\pi)$ 에서 $\{f(g(x))\}' > 0$ 을 만족시키는 모든 x 의 집합을

$$\{x | t_1 < x < t_2\} \cup \{x | t_3 < x < t_4\} \cup \cdots \cup \{x | t_{2p-1} < x < t_{2p}\}$$

라 하자. (단, $t_1 < t_2 < t_3 < \cdots < t_{2p}$)

$$\sum_{j=1}^p (t_{2j} - t_{2j-1}) = \frac{5\pi}{2}$$

일 때, n 의 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 2] 함수 $h(x)$ 를 $h(x) = \int_{-1}^x f(t)dt$ 라 할 때, 정적분

$$\int_{-1}^1 \left\{ f(x) \cos x + h(x) \sin x \ln \cos x - f(x) \cos x \ln \cos x \right\} dx$$

의 값을 구하십시오. (25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문제 1] 미분을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황선욱 외(2022), 수학 II, 미래엔, 82-84쪽.
- 권오남 외(2022), 미적분, 교학사, 88-91쪽, 158-161쪽.
- 류희찬 외(2022), 미적분, 천재교과서, 103-106쪽.

■ 문항해설

[문제 1] 합성함수와 삼각함수 미분법을 사용하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미분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문제

[문제 2] 미분을 활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하는 문제

■ 채점기준

[문제 1 평가기준]

- 합성함수의 도함수 제시 : 5점
- $\{f(g(x))\}' > 0$ 이 되는 구간을 제시 : 7점
- 정답을 제시 : 8점

[문제 2 평가기준]

- 직선의 방정식을 제시 : 3점
- $h(1) = 3$ 을 제시 : 5점
- 부분적분법을 사용하여 부정적분을 제시 : 12점
- 정답을 제시 : 5점

▣ 예시 답안

[문제 1] $k(x) = f(g(x))$ 라 하자. 그러면 함수 $k(x)$ 는 미분가능하고

$$k'(x) = 2f'(\sin 2x) \cos 2x$$

$\sin 2x$ 와 $\cos 2x$ 의 주기는 π 이므로 열린구간 $(0, \pi)$ 에서 조건 (1)에 의하여,

1) $f'(\sin 2x) > 0$, $\cos 2x > 0$ 인 경우 :

$f'(\sin 2x) > 0$ 이려면 $-1 \leq \sin 2x < 0$ 이어야 하므로 $\frac{\pi}{2} < x < \pi$ 이고

$\cos 2x > 0$ 이려면 $0 < x < \frac{\pi}{4}$, $\frac{3\pi}{4} < x < \pi$ 이어야 한다. 따라서 $\frac{3\pi}{4} < x < \pi$

2) $f'(\sin 2x) < 0$, $\cos 2x < 0$ 인 경우 :

$f'(\sin 2x) < 0$ 이려면 $0 < \sin 2x \leq 1$ 이어야 하므로 $0 < x < \frac{\pi}{2}$ 이고

$\cos 2x < 0$ 이려면 $\frac{\pi}{4} < x < \frac{3\pi}{4}$ 이어야 한다. 따라서 $\frac{\pi}{4} < x < \frac{\pi}{2}$

1), 2)로부터 열린구간 $(0, \pi)$ 에서 $\{f(g(x))\}' > 0$ 인 구간은 $\frac{\pi}{4} < x < \frac{\pi}{2}$ 와 $\frac{3\pi}{4} < x < \pi$ 이므로

$$t_1 = \frac{\pi}{4}, t_2 = \frac{\pi}{2}, t_3 = \frac{3\pi}{4}, t_4 = \pi$$

따라서 $(t_2 - t_1) + (t_4 - t_3) = \frac{\pi}{2}$. 함수 $k(x)$ 는 주기가 π 인 주기 함수이므로 열린구간 $(0, n\pi)$ 에서

$$\sum_{j=1}^p (t_{2j} - t_{2j-1}) = \frac{5\pi}{2}$$

이려면 $n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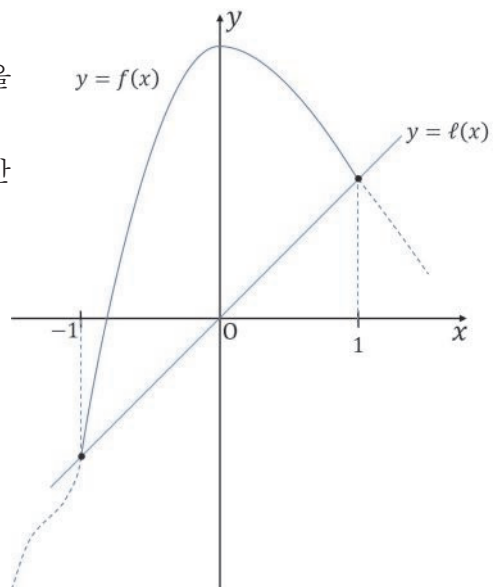
(참고) 조건 (1)에서 $f'(0) = 0$ 이고, 조건 (3)으로부터 닫힌구간 $[-1, 1]$ 에서 연속함수 $f'(x)$ 는 감소한다. 따라서 $f'(-1) > 0$ 이고 $f'(1) < 0$

[문제 2] 조건 (2)로부터 $f(-1) = -f(1)$ 이므로

두 점 $(-1, f(-1))$ 과 $(1, f(1))$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 = \ell(x)$ 라 하면 $\ell(x) = f(1)x$ 이다.

한편 조건 (3)과 (4)에 의하여 곡선 $y = f(x)$ 는 열린구간 $(-1, 1)$ 에서는 위로 볼록하다. 따라서 직선 $y = \ell(x)$ 와 곡선 $y = f(x)$ 는 오직 두 점 $(-1, f(-1))$, $(1, f(1))$ 에서만 만나고 닫힌구간 $[-1, 1]$ 에서 $\ell(x) \leq f(x)$ 이다.

즉, 곡선 $y = f(x)$ 의 개형은 다음과 같다.



조건 (4)에 의하여

$$3 = \int_{-1}^1 \{f(x) - \ell(x)\} dx = \int_{-1}^1 \{f(x) - f(1)x\} dx = \int_{-1}^1 f(x) dx$$

이므로

$$h(1) = 3 \quad \dots (*)$$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begin{aligned} \int h(x) \sin x dx &= \int h(x) \cos x \frac{\sin x}{\cos x} dx \quad \dots (**) \\ &= -h(x) \cos x \ln \cos x + \int \{f(x) \cos x - h(x) \sin x\} \ln \cos x dx \end{aligned}$$

이고

$$\int h(x) \sin x dx = -h(x) \cos x + \int f(x) \cos x dx \quad \dots (***)$$

그러므로 식 (**)와 (***)에 의하여

$$\begin{aligned} &\int \left\{ f(x) \cos x + h(x) \sin x \ln \cos x - f(x) \cos x \ln \cos x \right\} dx \\ &= h(x) \cos x - h(x) \cos x \ln \cos x + C \end{aligned}$$

이므로(C 는 적분상수), 식 (*)와 $h(-1) = 0$ 에 의하여

$$\begin{aligned} &\int_{-1}^1 \left\{ f(x) \cos x + h(x) \sin x \ln \cos x - f(x) \cos x \ln \cos x \right\} dx \\ &= 3 \cos 1 - 3 \cos 1 \ln \cos 1 \\ &= 3 \cos 1 (1 - \ln \cos 1) \\ &= 3 \cos 1 \ln \frac{e}{\cos 1} \end{aligned}$$

 Note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가) 함수 $f(x)$ 가 $x=c$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f(x)$ 위의 점 $P(c, f(c))$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c)=f'(c)(x-c)$

(나) 열린구간 (a, b)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x=c$ 에서 최댓값을 가질 때 $f'(c)=0$ (단, $a < c < b$)

(다) 첫째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즉, 공비 r 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n+1} = r a_n \quad (\text{단, } n = 1, 2, 3,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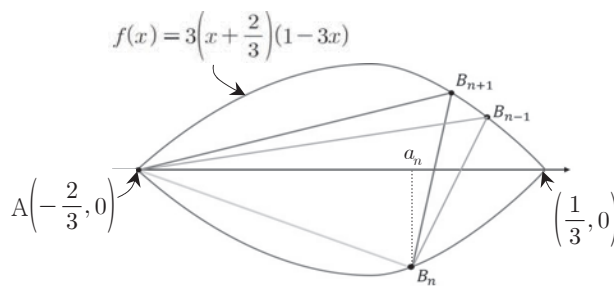
또한 첫째항이 a , 공비가 $r(r \neq 0)$ 인 등비수열 $\{a_n\}$ 의 일반항은 $a_n = a r^{n-1}$

(라)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int_a^b f(x) dx =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x_k) \Delta x \quad \left(\text{단, } \Delta x = \frac{b-a}{n}, x_k = a + k \Delta x \right)$$

함수 $f(x) = 3\left(x + \frac{2}{3}\right)(1-3x)$ 의 그래프와 $g(x) = -f(x)$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을 R 라 하고 R 의 둘레를 S 라 하자.

$-\frac{2}{3} < a < \frac{1}{3}$ 에 대하여 S 위의 두 점 $A\left(-\frac{2}{3}, 0\right)$ 과 $B(a, g(a))$ 를 꼭짓점으로 하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의 꼭짓점을 A, B, B_1 이라 하고, 다시 두 점 A 와 B_1 을 꼭짓점으로 하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의 꼭짓점을 A, B_1, B_2 라 하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자연수 n 에 대하여 두 점 A 와 B_n 을 꼭짓점으로 하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의 꼭짓점을 A, B_n, B_{n+1} 이라 하자. 또한 점 B_n 의 x 좌표를 a_n 이라 하자.



[문제 1] $B_3\left(\frac{1}{18}, f\left(\frac{1}{18}\right)\right)$ 일 때 a_1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제 2] 수열 $\{a_n\}$ 이 등비수열임을 참고하여 A 가 꼭짓점이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3] $a = -\frac{1}{2}$ 일 때 수열 $\{a_n\}$ 에 대하여

$$b_n = \frac{1}{\ln |a_n|} + \frac{1}{\ln |a_{n+1}|} + \dots + \frac{1}{\ln |a_{2n-1}|} = \sum_{k=n}^{2n-1} \frac{1}{\ln |a_k|}$$

이라 하자. 제시문 (다), (라)를 이용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b_n$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출제의도

[문제 1] 함수의 극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최대-최소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3]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자료출처

- 김원경 외(2018), 수학 I, 비상, 127-133쪽.
- 고성은 외(2019), 미적분, 좋은책신사고, 150-152쪽.
- 홍성복 외(2019), 미적분, 지학사, 111-124쪽.

문항해설

[문제 1] 극값의 개념을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높이가 높을수록 삼각형의 넓이가 커진다는 사실에 접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

[문제 2] [문제 1]을 확장해서 주어진 영역에 속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

[문제 3]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급수의 합을 적분으로 바꾸어 풀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

채점기준

[문제 1 평가기준]

- 선분 $\overline{AB_2}$ 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 점 B_3 는 가장 멀리 있음을 제시 : 8점
- $a_2 = -\frac{1}{9}$ 임을 제시 : 3점
- 정답을 제시 : 4점

[문제 2 평가기준]

- $3(3a_n - 1) = f'(a_{n+1})$ 을 제시 : 7점
- 세 꼭짓점이 $A, (0, g(0)), (0, f(0))$ 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큰을 제시 : 7점
- 정답을 제시 : 6점

[문제 3 평가기준]

- $b_n = -\frac{1}{\ln 2} \sum_{k=n}^{2n-1} \frac{1}{k+1}$ 을 제시 : 6점
- $\lim_{n \rightarrow \infty} b_n = -\frac{1}{\ln 2} \int_0^1 \frac{1}{x+1} dx$ 를 제시 : 8점
- 정답을 제시 : 6점

■ 예시 답안

[문제 1] 삼각형 $\triangle AB_2B_3$ 은 두 점 A 와 B_2 가 꼭짓점이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이므로 점 B_3 은 곡선 $y=f(x)$ 위의 점 중에서 선분 $\overline{AB_2}$ 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 의해서 선분 $\overline{AB_2}$ 와 B_3 가 가장 멀리 있을 때에는 선분 $\overline{AB_2}$ 의 기울기와 B_3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므로, 선분 $\overline{AB_2}$ 의 기울기는

$$\frac{3\left(a_2 + \frac{2}{3}\right)(3a_2 - 1)}{a_2 + \frac{2}{3}}$$

이고 $f'\left(\frac{1}{18}\right) = -4$ 이므로 $a_2 = -\frac{1}{9}$ 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선분 $\overline{AB_1}$ 의 기울기는 $3(1 - 3a_1)$ 이고

$$g'\left(-\frac{1}{9}\right) = 1 \text{ 이므로 } a_1 = \frac{2}{9}$$

[문제 2] S 에 내접하는 임의의 삼각형 $\triangle ABC$ 가 있다. 당연히 $\triangle ABC$ 의 넓이보다 점 A, B 가 꼭짓점이고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 $\triangle ABB_1$ 의 넓이가 크거나 같고, 다시 삼각형 $\triangle ABB_1$ 의 넓이보다 삼각형 $\triangle AB_1B_2$ 의 넓이가 더 크거나 같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얻은 삼각형 $\triangle AB_nB_{n+1}$ 의 넓이는 삼각형 $\triangle AB_{n-1}B_n$ 의 넓이보다 같거나 크다.

한편 수열 $\{a_n\}$ 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 1]과 같이 접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기울기의 관계를 이용하자. 점 B_n 이 $B_n(a_n, f(a_n))$ 과 $B_n(a_n, g(a_n))$ 인 두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각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자. 먼저 $B_n(a_n, f(a_n))$ 이라면 $\triangle AB_nB_{n+1}$ 이 두 점 A, B_n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선분 $\overline{AB_n}$ 의 기울기는 $y=g(x)$ 의 $x=a_{n+1}$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선분 $\overline{AB_n}$ 의 기울

$$\frac{3\left(a_n + \frac{2}{3}\right)(1 - 3a_n)}{a_n + \frac{2}{3}}$$

이고 곡선 $y = g(x)$ 의 $x = a_{n+1}$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a_{n+1}) = 18a_{n+1} + 3$ 이므로 $a_{n+1} = -\frac{1}{2}a_n$ 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B_n(a_n, g(a_n))$ 인 경우에도 $a_{n+1} = -\frac{1}{2}a_n$ 을 얻는다.

따라서 수열 $\{a_n\}$ 은 공비가 $-\frac{1}{2}$ 인 등비수열이고, $a_1 \neq 0$ 이라면 삼각형 $\triangle AB_n B_{n+1}$ 의 넓이는 n 이 증가할 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세 꼭짓점이 $A, (0, g(0)), (0, f(0))$ 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다($\lim_{n \rightarrow \infty} a_n = 0$). 그러므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은

$$\frac{1}{2} \cdot \frac{2}{3} \{2 - (-2)\} = \frac{4}{3}$$

[문제 2의 별해] 점 A 를 꼭짓점으로 하고 R 에 포함되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을 $\triangle ABC$ 라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과정에서 얻은 점 B_1, B_2, B_3 은 (더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므로) $\{B, C\} = \{B_1, B_2\}$, $B_3 = B_1$ 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위와 마찬가지로 $a_2 = -\frac{1}{2}a_1$, $-\frac{1}{2}a_2 = a_3 = a_1$ 에서 $a_1 = a_2 = a_3 = 0$ 이고, 점 B 의 x 좌표 a 도 $a = a_1 = a_2 = a_3 = 0$ 이다. 그러므로 $\triangle ABC$ 의 세 꼭짓점은 $A, (0, g(0)), (0, f(0))$ 이고, 넓이는 $\frac{4}{3}$

[문제 3] [문제 2]에 의하여 수열 $\{a_n\}$ 은 첫째항 $a_1 = \frac{1}{4}$ 이고 공비 $-\frac{1}{2}$ 인 등비수열이므로

$$b_n = \frac{1}{\ln 2} \sum_{k=n}^{2n-1} \frac{1}{\log_2 |a_k|} = -\frac{1}{\ln 2} \sum_{k=n}^{2n-1} \frac{1}{k+1}$$

따라서 제시문 (라)에 의해서

$$\lim_{n \rightarrow \infty} b_n = -\frac{1}{\ln 2} \lim_{n \rightarrow \infty} \sum_{\ell=n}^{2n-1} \frac{1}{\ell+1} = -\frac{1}{\ln 2}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rac{1}{\frac{k}{n}+1} \frac{1}{n} = -\frac{1}{\ln 2} \int_0^1 \frac{1}{x+1} dx = -1$$

 Not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함수 $f(x)$ 가 임의의 세 실수 a, b, c 를 포함하는 닫힌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c f(x) dx + \int_c^b f(x) dx = \int_a^b f(x) dx$$

(나) 미분가능한 함수 $g(t)$ 에 대하여 $x = g(t)$ 로 놓으면

$$\int f(x) dx = \int f(g(t)) g'(t) dt$$

(다) 함수 $f(x)$ 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 에 대하여

- $f'(x) > 0$ 이면 $f(x)$ 는 증가
- $f'(x) < 0$ 이면 $f(x)$ 는 감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증가하는 함수 $f(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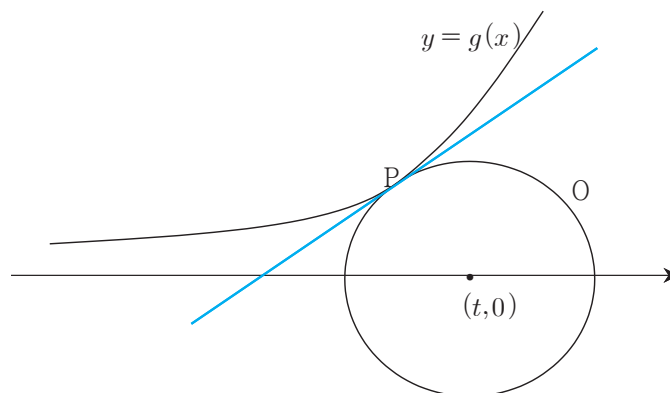
- (1)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2) = f(x) + 2$
- (2) $0 \leq x \leq 2$ 인 모든 x 에 대하여 $f(x) + f(2-x) = 2$
- (3) $\int_0^1 f(x) dx - \int_{-1}^0 f(x) dx = \frac{5}{4}$

함수 $g(x)$ 를 $g(x) = ae^x + b$ 라 하자. (단, a, b 는 상수이고 $a > 0$)

[문제 1] 정적분 $\int_{-1}^4 f^{-1}(x) dx$ 의 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 2] $g(t) \neq 0$ 인 각각의 실수 t 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 가 단 하나씩만 존재할 때 실수 b 의 최솟값을 구하십시오. (25점)

곡선 $y = g(x)$ 와 중심이 $(t, 0)$ 인 어떤 원 O 가 점 P 에서 만나고
점 P 에서 곡선 $y = g(x)$ 와 원 O 는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갖는다.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가이드 답안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의도

[문제 1] 정적분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제 2] 미분을 활용하여 접선의 방정식,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배종숙 외(2018), 수학, 금성출판사, 139-167쪽.
- 김원경 외(2018), 수학II, 비상, 112-131쪽.
- 황선욱 외(2019), 미적분, 미래엔, 105-120쪽.

▣ 문항해설

[문제 1] 역함수의 정적분과 함수의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를 파악하여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

[문제 2] 미분을 활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방정식이 실근을 단 하나만 가질 조건을 찾는 문제

▣ 채점기준

[문제 1 평가기준]

- 함수 $f(x)$ 의 정적분과 역함수 $f^{-1}(x)$ 의 정적분의 관계를 제시 : 7점
- $\int_2^4 f(x) dx = \int_0^2 f(x) dx + 4$ 를 제시 : 4점
- $\int_0^1 f(x) dx = \frac{5}{8}$ 를 제시 : 4점
- 정답을 제시 : 5점

[문제 2 평가기준]

- P의 x 좌표와 t 의 관계식을 제시 : 10점
- $h'(u) \geq 0$ 을 제시 : 10점
- 정답을 제시 : 5점

■ 예시 답안

[문제 1] $x=0$ 일 때 조건 (1)에서 $f(2)=f(0)+2$ 이고 조건 (2)에서 $f(0)+f(2)=2$ 이므로 $f(0)=0$, $f(2)=2$ 이다. 또, $x=1$ 일 때 조건 (2)에서 $f(1)=1$ 이다. 따라서 조건 (1)에서 모든 정수 k 에 대하여

$$f(k)=k$$

$f(x)$ 가 역함수를 가지므로 $f^{-1}(-1)=-1$ 이고 $f^{-1}(4)=4$ 이다. 따라서

$$\int_{-1}^4 f(x)dx + \int_{-1}^4 f^{-1}(x)dx = 16 - 1 = 15$$

이므로

$$\int_{-1}^4 f^{-1}(x)dx = 15 - \int_{-1}^4 f(x)dx$$

그러므로 $\int_{-1}^4 f(x)dx$ 의 값을 구하면 된다. 조건 (1)에서

$$\int_2^4 f(x)dx = \int_0^2 f(x+2)dx = \int_0^2 \{f(x)+2\}dx = \int_0^2 f(x)dx + 4$$

이므로

$$\int_{-1}^4 f(x)dx = \int_{-1}^0 f(x)dx + 2 \int_0^2 f(x)dx + 4 \quad \dots (*)$$

한편, 조건 (1)에서 $f(2-x)=f(-x)+2$ 이고, 조건 (2)에서 $0 \leq x \leq 2$ 일 때 $f(2-x)=2-f(x)$ 이므로 $-2 \leq x \leq 2$ 일 때 $f(x)+f(-x)=0$, 즉 원점에 대칭이다. 따라서

$$\int_{-1}^1 f(x)dx = 0$$

이고 조건 (3)에서

$$\int_0^1 f(x)dx = - \int_{-1}^0 f(x)dx = \frac{5}{8} \quad \dots (**)$$

또한, 조건 (1)에서

$$\int_1^2 f(x)dx = \int_{-1}^0 f(x+2)dx = \int_{-1}^0 \{f(x)+2\}dx = -\frac{5}{8} + 2 = \frac{11}{8}$$

이므로 (*)과 (**)에서

$$\int_{-1}^4 f(x)dx = -\frac{5}{8} + 2\left(\frac{5}{8} + \frac{11}{8}\right) + 4 = \frac{59}{8}$$

$$\text{그러므로 } \int_{-1}^4 f^{-1}(x)dx = 15 - \frac{59}{8} = \frac{61}{8}$$

[문제 2] 점 $P(u, g(u))$ 에서 원 O 의 접선이 점 $P(u, g(u))$ 에서 곡선 $y = g(x)$ 의 접선과 일치하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 - g(u) = g'(u)(x - u)$$

또한, 점 P 를 지나고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원 O 의 중심 $(t, 0)$ 을 지나므로

$$0 = -\frac{1}{g'(u)}(t - u) + g(u)$$

이고, $g(x) = ae^x + b$ 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u + ae^u(ae^u + b) = t$$

문제에서 요구하는 b 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

$$h(u) = u + ae^u(ae^u + b)$$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일대일대응이 되도록 하는 b 를 모두 찾으면 충분하다. 먼저

$$\lim_{u \rightarrow \infty} h(u) = \infty, \quad \lim_{u \rightarrow -\infty} h(u) = -\infty$$

이고 $h(u)$ 는 연속함수이므로 $g(t) \neq 0$ 인 각각의 t 에 대하여 방정식 $h(u) = t$ 가 하나 이상의 해를 가진다. 또한, $h(u)$ 는 상수인 구간이 없으므로, $h(u)$ 가 일대일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h'(u) \geq 0$.

$$h'(u) = 1 + 2a^2e^{2u} + abe^u$$

이므로 $h'(u) \geq 0$ 이기 위해서는

1) $b \geq 0$ 일 때는 모든 실수 u 에 대하여 $h'(u) \geq 0$,

2) $b < 0$ 일 때는 $h'(u) = 1 + 2\left(ae^u + \frac{b}{4}\right)^2 - \frac{b^2}{8}$ 에서 $b \geq -2\sqrt{2}$ 는 $h'(u) \geq 0$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므로 b 의 최솟값은 $-2\sqrt{2}$



Note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입학처 입학팀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입학처 입학팀 041.550.1234~8

대표전화 1899-3700 www.dankook.ac.kr